

교직원등 정기총회 오는 21일 중강당

본교 교직원 등 정기총회가 오는 21일 중강당에서 열린다.

대의협력처(처장=한보광·선학)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동문 교사간의 유대형성과 학교 이미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의 예정이다.

우수 연구교원·기관 장려금 지급, 연구독려

연구교육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학)는 21일 연구 우수교원과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지난 21일 총장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수상은 지난해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많이 수주한 교원 및 연구기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해마다 정례화 시킬 예정이다.

연구비 우수교원으로 △신동혁(물리학) △신현소(화학공학) △최병석(정보통신학) △장종식(미술사학) △이의수(화학공학) △송민규(반도체학) △성용길(화학) △이혜은(지리교육학) △이영재(정보관리학) △신효선(자연학) △백수현(전기공학) 교수가, 우수 연구기관에는 산업기술연구원이 선정됐다.

한편 경주캠은 △황상주(미술학) △안태호(고고미술학) △주재훈(정보산업학) △김철호(한의학) 교수가 수상했다.

이원식 경주시장 본교 겸임교수 초빙

본교는 지난 9월 27일자로 경주캠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영중·행정학) 겸임교수로 이원식 경주시장을 초빙했다.

2학년 전공선택 16일부터 3일간

2학년 학부생의 전공과 학과 결정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이뤄진다.

이번 전공 선택 인원 배치는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율 기준'으로 최대 150%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과 결정과 확정 발표는 오는 26일 각 단과대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입진각에서 통일걷기대회 개최

백상예술제전, 서울캠 13일까지 ... 경주캠 12일 황성공원

오는 11일 문산에서 입진각까지 '2000년 민족통일 통일대행진' 경기 대회를 시작으로 백상예술제전이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6·15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동국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통일대행진과 더불어 통일·이북문제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1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와 달리 입진각에서 진행될 이번 개막식은 △오전10시=대운동장에서 버스 출발 △오전11시=문산통일공원 도착 및 입진각까지 도보행진 시작 △오후1시

=입진각 도착 △오후1시~2시=점심시간 및 사전행사 △오후2시~3시=본행사 △오후3시~4시30분=각종 민속놀이한마당 순으로 진행된다.

총학생회는 통일대행진을 준비하면서 참여 저조를 우려하기도 했으나, 현재 사범대 250명 학생들이 접수했으며 다른 단과대에서도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각 학과 교수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12일에는 오후 12시 불상 앞에서 노래·율동 등 각

동아리와 소모임의 '상설 문예마당'이 준비돼 있으며, 만해광장과 대운동장에서 축구·농구·족구·여자 자유투 결승전이 열린다. 13일 오후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는 '백상마라톤'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후 6시에는 통일·이북문제한마당과 폐막식이 펼쳐진다.

경주캠의 경우 소수 인원의 참여라는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해와 달리 8개 단과별 단일팀 출전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반의 어깨 걸기 2000 백상제전'을 기

치로 오는 12일 황성공원 시민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체육대회는 전체 경기가 각 과별로 진행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구기 종목(축구, 농구, 야구, 피구, 발야구)의 예선 및 결승이 각 과별 번의 경기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정식 종목은 행사 당일 치러진다. 행사일정은 △개회식 △사회체육학과 예러복 시범 △단체줄다리기(예선), 단체줄넘기(예선·본선), 축구결승=오전11시~12시 △단체줄다리기(본선), 단체줄다리기(결

승)=오후1시~2시 △마라톤, 100M달리기, 단체줄넘기(결승), 인강단환=오후2시~3시 △400M 릴레이(본선), 교수·학생대표 축구대회=오후3시~4시 △400M 릴레이(결승)=오후4시~4시 30분 △OX 퀴즈=오후4시 30분~5시 △폐회식 등이다.

이외에도 △동국가요베스트 △동국 팔씨름 왕 선발대회 △세븐글라스, 아우라, 바리밀, 유로트, 케스트 공연 △동국인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의 문화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지우개 따먹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다시 읽다'라는 주제로 열린동원제가 진행됐다. '추억의 테이블게임'에 참가한 학생들의 표정에서 동심의 세계가 느껴진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조교제도 개선안 일단락 교육조교 자격 제한·기준 완화

막바지 혼신을 빚었던 조교제도 개선안 논의가 일단락 됐다. 이로써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영재·정치학 박사과정, 이하 원총)와 학교측과의 갈등요인이었던 교육조교 자격과 배정기준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 교육

조교 자격은 운영지침에 명시되었던 '대학원 재학'으로 하되, 조교 임용시 대학원 재학생 해당자가 없을 경우 재학생이 아닌 사람도 임용가능하다. 또한 교육조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교수자격은 책임시간이라 불리는 일주일 강

의시간이 9시간 이상인 교원이어야 하며, 책임시간이 9시간 미만인 교원의 경우 △한 과목 수강생이 40명 이상인 교양과목을 담당하거나 △책임시간 외 3시간 이상을 담당한 교원도 기회가 부여돼 그 기준이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양측은 △부설연구기관 연구조교의 운영정원 증원 △석·박사 차등급여 명기 △시험기간 명시 △조교임기 연장 기한 증대 △조교 근무시간과 역할 명시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오광진 인사관리팀장은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의견수렴을 거쳐 언제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분	자격	처우	비고
행정조교A	대학원재학	등록금+교육지원비	(구)교육조교 B, B1 통합
행정조교B	학사이상	급여	(구)교육조교A.C 통합
연구조교	대학원재학	등록금 전액감면	
교육조교	대학원재학	등록금 50% 감면	신설

축구부 전국대회 출전 22일 경기대와 첫경기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오는 20일부터 '제55회 전국축구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총 41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대학팀 뿐만 아니라 군·실업팀도 함께 참여한다.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효창구장과 파주금촌운동장에서 8강전까지 치러지며, 4강전부터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진행된다.

본교는 오는 22일 금촌운동장에서 경기대와 첫 경기를 가진다.

고수동정

▲송석구(철학)=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열린 제7회 일본 불교·철학계 대학 회의 초청 참가. 21세기에 있어서 불교계 대학의 위상' 기조 강연.

▲변기홍(기계공학)=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4차 한일열공학대학대회에서 논문 발표.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10월 16일자와 23일자는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제1305호)은 10월 30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지난호(제1303호 10월 2일자) 인터뷰 기사 중 전기전자 계열이 종합순위에 들지 않았다는 표현은 종합순위를 매기지 않은 것으로 정정합니다.

지면안내

- 반성폭력 학칙 제정 6~7면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행사건으로, 서울시내 대학을 중심으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활발하다. 따라서 본교 학칙에 명시된 성폭력 관련 조항을 알아보고 비합리한 캠퍼스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각 대학의 움직임이 다룬다.
- 게리 스나이더 강연 초록 5면
- 부산국제영화제 탐방기 10면
- 캠퍼스 지명유래 알기 11면

보리수

서로 용납하는 삶

전 해 주 (불교대 불교학부)

요즈음 KBS주말드라마에 '왕건'을 방영하고 있다. 통일신라말기 후삼국 시대, 궁예가 미륵부처로 자처하고 통일을 꿈꾸는 모습이 한창 비추지고 있다.

미륵보살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통성이 되어 중생을 구제한다고도 하였고 때문에, 때때로 자신이 미륵의 화현으로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상을 갖는 이가 나올 수 있다.

화엄경에는 선재(善財)라는 구법자가 미륵보살을 찾아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인지 보살도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륵보살은 선재에게 우리 각자의 전 힘을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어 줌으로써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이 도리를 서로 들어가고 받아들인다고 하여 상용(相容)이라고 한다. 나와 남, 하나와 일체, 부분과 전체가 결핍없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좁고 작은 것이 넓고 큰 곳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넓고 큰 것이 낮고 좁은 곳에 들어가는 이치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조그만 눈동자 속에 남산이 다 들어오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 사회가 원하는 것의 방향이 같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만약 자기에 게 이익이 되는 것이 남에게 또는 전체사회에 해가 되거나, 전체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면,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상용의 도리는 서로의 힘을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이치이므로 서로 용납하는 지혜의 삶은 개인이 모든 이를 돕고 전체 모든 이가 개인을 돕게 된다.

각자 자신의 전 힘을 남에게 미루어 줄 수 있어야 다른 이의 힘도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이 자리가 니꺼야? 좌석은 누구나 앉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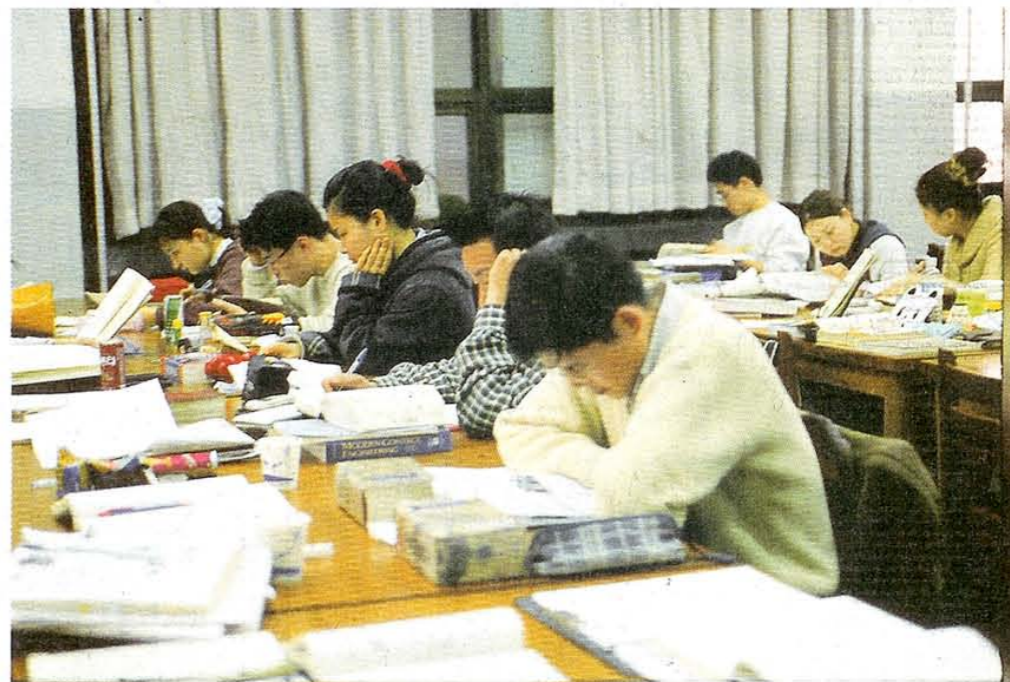
중간고사 기간.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와보니 사람은 별로 없는데

빈 책상에는 주인 없는 책이 웨이리 많은 건지...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 자리맡아주기 규제 시행

- 1차적발시 1개월 출입금지
- 2차적발시 6개월 출입금지
- 3차적발시 영구 출입금지



학생대표자회의 연이은 무산

학생회 간부 책임감 부족... 애정어린 채찍질 필요

2000학년도 하반기 정기학생대표자회의가 2차례에 걸쳐 무산됐다.

제32대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학과)는 지난날 28일 개최한 정기학생대표자회의가 총 재적인원 99명중 40명만이 참가해 무산되어 지난 4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학생대표자회의를 재소집했다.

그러나 재소집에 모인 인원은 총 재적인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5명에 불과했다. 결국, 이번 회의는 백상예술제전 기획안 △생협 독립법안 등 자료집에 있는 안건을 토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김태광(국교4)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회의가 통일대행진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일년 사업 계획 방향 △긴급한 사안의 발생 △일반 학생들의 입장 표명 등 학내 제반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이며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 각 학부학생회장이 책임을 다 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학기에 등록금 투쟁으로 비상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려 올해는 실질적으로 정기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차례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정기학생대표자회의가 무산된 것은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결코 학생들의 사고변화와 개인주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올해 전반적으로 각 과·학부학생회장이 없는 단위가 많은 데다가 현 학생회 간부들의 실질적인 임기가 1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시작했을 때보다 열의가 많이 식어 학생대표자회의를 성사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지않다.

그러나, 모집단위광역화로 학생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학생회 간부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현재 서울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재욱(조소4)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본교 전학대회는 많은 대의원들

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11~12시간에 걸쳐 학내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올해 전학대회를 성사해 학칙개정 한 속명여대 총학생회 송수진(정보방송4) 집행위원장은 "이번 전학대회에 각 과학생회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생회 간부들의 이력을 대자보에 써서 전학대회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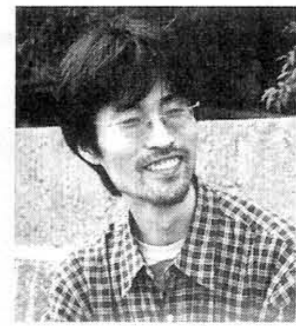
차기 학생회 건설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각 단과대 학생회 간부들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고 비판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기자
lemtree@dongguk.edu

인터뷰 - 모범독서상 수상한 한천희(영화4)군

지하철서 책읽을 때 가장 행복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모범독서상·봉사상' 수상자 4명을 선정해 지난 달 28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중 모범독서상을 수상한 한천희(영화4)군은 만나 수상소감과 독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 '모범독서상'을 수상한 소감은.
=다른 학교를 다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97년 본교 연극영화학과에 다시 입학했다.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이런 상을 받게 되니 새로운 기분이 든다.

- 평소 독서습관은 어떠한지.
=오교가는 지하철 안에서 틈틈이 책을 읽는다. 특히, 지하철에 앉아 책을 읽으며 집에 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한 달에 15권 내지 20권 정도 책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의 책만 읽기보다는 불교서적이거나 정공서적부터 소설책이나 무협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골고루 읽는 편이다. 책을 많이 읽게된 계기가 있다

면 자주 찾아 읽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대학생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크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때부터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준 것 같다.

-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며 느낀 점은.
=읽고 싶은 책이나 자료 등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본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회전무대

좁은 문

O...가상대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바늘구멍같이 좁은 문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많다는데. 알아보니, 접속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접속이 된다 하더라도 다 운되기 일쑤라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상대학의 좁은 문 앞에서 학교측과 제조업체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접속에 실패한 한 학생 왈, "가상대학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쌓인다 쌓여

O...도서관 밖에서 떨어지는 가을 낙엽은 도서관 안에도 날리고 있다(?) 도서관에 새로 생긴 프린터 주변이 학생들의 쓰고 버린 열람신청서로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이는 공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범절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교정에는 낙엽, 도서관에는 종이, 청소아줌마는 스트레스 쌓인다네"

불사신

O...강의실 안팎은 물과 기름 사이(?) 강의실 밖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데. 수업종음을 알리는 교수님의 지적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 기만 하고. 다른 사람 강의시간을 배려하지 않는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007특급작전! 네버다이 북도 수다쟁이를 없애라"

대머리선 미군

O...얼마전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황당한 발언에 다시 한번 허탈해 했다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이미 시달배치가 끝난 인천공항의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 다고. 특목방 방류사건에 대한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주한미군은 이번이 자신들의 요구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 본 회전무대자 왈, "그렇게 공짜가 좋다면 한강물을 너희에게 다 주마"

정각원, 고등초청법회 오는 10월 오후 4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0월 오후 4시 동국학원이사 배도원 큰스님을 초청, '고등초청법회'를 연다.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추계명찰순례 오는 27일 지리산 쌍계사에서 진행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오는 27일부터 1박 2일간 '추계 명찰순례'를 떠난다.

지리산 쌍계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순차순으로 45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관 3층 학생복지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업준비 실천모의면접 18일 오후 2시 중강당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취업지원팀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모의면접을 실시한다. 중강당에서 열리게 될 이번 모의면접은 △개별면접 △집단면접 △집단토의면접 후 단계별 강령실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면접관으로 △정재성(대학과 미래) 대표(이사) △이홍규(LG전자 인사팀

△△이승기(대상그룹 인사팀장) △△동익(주택은행 인사팀장)을 초청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 철야 개방 실시 16일부터 26일까지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24시간 철야개방을 실시한다. 철야개방은 도서관 4층 제3열람실만 해당되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외부로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 최봉주 과장은 "시험기간 동안에도 도서관 자리 맡아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맡아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범대 학림축전 개막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사범대 학생회(회장=임은희·수교4)는 오늘(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범대 학림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축전은 개막제를 시작으로 △10일=학과별 행사 △11일=문산-임진각 견기대회 △12일=추모제, 학림 뽐내기 대회 등이 진행되며 폐막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또한 행사기간 중 농구, 축구 등의 체육대회 결승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하반기 대의원 총회 성사

총대회칙 중 4개조항 개정

총대의원회(의장=채진석·경제4, 이하 총대)는 지난 5일 '2000학년도 하반기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총대 회칙안 중 4개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조항을 살펴보면 △학부·전공 대의원회 구성 △집행국 산하 감사국 추가구성 △총대 정·부의장 출마자격 중 4개 단과

대학 이상의 20인 이상이 추천하도록 변경 △대의원 선거를 매학기 진행하나 연임가능의 내용이다.

총 재적인원 201명 중 정족수인 67명이 참석해 성사된 이번 회의는 △총대 상반기 사업 △2000학년도 2학기 학생회비 예산분배 △총대 회칙 개정 등이 논의됐으며, 지난 3월 총대에서 실시한 새터부정기감



건강합시다... 보건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사를 실시했다. 새롭게 단장한 보건소가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북적거렸다. 김은선 기자 ppizic@dongguk.edu

박영석, 시사광마 등정 14좌 완등 1개봉 남아

박영석(동국산악회, 체교91졸)등문이 이끄는 '2000 동국 시사광마 원정대'가 지난 2일 시사광마(8027m) 등정에 성공했다.

원정대는 지난 8일 브로드피크 등정 후 K2등정을 시도했으나 기상악화로 실패해 시사광마를 먼저 등정하여 히말라야 8천m 이상 14좌 완등에 K2(8611m)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선학)의 한 관계자는 "14좌 완등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K2 등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원정대원들에게 당부했다.

◆ 특강안내

경영대학원생활과 자기개발

경영대학원(원장=조희영·경영학)은 오는 24일 오후 7시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전 한국경영학회 회장인 황일형(한양대 경영학) 박사의 '경영환경특강'을 개최한다.

21세기 한국정부 개혁방안

행정대학원(원장=이상현·경찰행정학)은 오는 17일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이연택씨의 강연을 열 예정이다.

강연회 "인터넷기업 CEO의 도전과 비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경향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본교가 후원하는 "인터넷기업 CEO의 도전과 비전" 강연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이 강연회는 인터넷기업 CEO들이 각 대학을 방문하여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CEO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본교생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연 제: "디지털사회와 백만장자"
- 초청연사: 황인태(매경 Husdaq 대표이사)
- 일 시: 2000년 10월 10일(화) 15:00~17:00
- 장 소: 90주년 기념문화관 덕담세미나실
- 연사 주요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매일경제 신문사 논설위원
 - 매경이전환경영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부회장

매경 Husdaq은 매일경제신문의 자회사로서 구인구직(www.hellojob.net), 사이버교육, 자격증 인터넷 원서접수, 인사관리, e-Biz관련 교육, 헤드헌팅, 인재아웃소싱 등의 사업을 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기반의 인사관리 종합회사입니다.

* 참석자(200명)에게는 매경 Husdaq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명사초청특강 사랑(x)과 결혼(i) -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1. 일시: 2000. 10. 17(화) 17:00 ~ 19:00
2. 장소: 본관 중강당
3. 강사: 여남영 위원
 - ▶ 주요 약력
 -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
 - 방송국 구성작가 및 여성관련 자유기고가로 활동
 -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 자문위원
 - ▶ 주요 저서
 - 내 사랑엔 내가 없다
 - 기쁜 여자가 팔자도 좋다
 - 초보 엄마 파이팅 (14인 공저)

학 생 처

채용설명회

본사를 미국 산호세에 두고 있는 (주)노벨레스코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2000년 10월 17일(화) 10:00-12:00
2. 장소: 학림관 소강당
3. 소개
 - ▶ 채용규모: 25-30명
 - ▶ 자 격: 전공기초지식, 영어 토익 700이상
 - ▶ 모집분야: 전자, 전기, 재료공학, 물리화학, 반도체, 화학, 화공
 - ▶ 급 여: 대기업 급여의 150% 이상
 - ▶ 특 전: 채용후 3개월간 미국연수

* 설명회 현장에서 채용가부 결정가능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인사담당자 직접면접

학 생 처

2001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000명
2. 모집지역: 4학제 대학졸업자(2000.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2000. 10. 2 ~ 10. 28
 - 나. 장 소: 학군단
 - 다. 구비서류
 - 지원서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 주민등록 / 호적등본 각 1부 (부모사망시 제적등본 추가)
 - 대입수능(학력)성적증명서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칼라사진(4x5cm) 4매
 - 지원진술서 A양식 1부
4. 선발절차
 - 가. 1차: 수능성적(20%), 대학성적(20%), 체력검정(30%), 인성검사
 - 나. 2차: 신체검사, 면접평가(30%), 심원조회
5. 합격자 발표: 2001. 3. 27
6. 특전
 - 가.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지원 가능
 - 나. 국내외 민간대학원에 국비취학 가능
 - 다. 의무복무기간: 3년
 - 라.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동
 - 마. 전역시 일반기업체 취업 우선
7. 문의처: 학군단 행정실 2260-8537

제112학생군사교육단

주한 미군 폐유 방류사건과 SOFA개정

논단

미군 환경범죄의 면죄부 SOFA

대니얼 페트로스키 미 8군사령관이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에 대해 사과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강원도 원주 소재 캠프 이글에서 지난 10년간 항공폐유를 섞장으로 무단 방류해 온 것이다. 캠프 이글 내 주유소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수질과 토양은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기지 내 정화시설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심각한 21만 원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어, 주한미군 환경범죄가 우리 산하를 오염시키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환경범죄 위험수위 넘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지 반세기가 지났다. 현재 한국에는 전국에 걸쳐 95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기지 내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평택 미군 공군기지의 순간 소음치는 112dB로 인근 주민들은 일상적인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매항리 폭격장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상은 역학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하루 3천톤의 폐

수가 정화처리 없이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서울시민의 험터인 백운산 계곡은 98년 기름유출 사건으로 죽음의 계곡으로 변했다. 심지어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은 계속된 미공군 폭격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마치 남의 나라일인양 뒷집을 지고 있다. 독극물 방류 사건 당시 제기되었던 현장조사는 진행되지도 않았고, 방류지사책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미군관련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수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필리핀 사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클라크 미군기지 주민의 환경피해 사례는 우리 정부가 무연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1년부터 미군이 철수한 클라크 미군 기지에 주민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2~3년이 지나자 약 3백명의 주민이 암과 백혈병, 폐질환을 앓기 시작했

다.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만 1백30명에 달했다.

주민들이 이주한 지역은 미군 세차시설이 위치했던 곳으로 크롬, 수은, 납, 벤젠, 톨루엔 등 각종 유독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이었던 것이다. 지금 주민들은 국민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필리핀 정부와 오염당사자인 미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오염된 클라크 기지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군은 SOFA 상에 복구의 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화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복구비용 고스란히 국민의 몫

한국의 상황도 필리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디에도 '환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주둔군지위협정 제4조 시설과 구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파괴된 환경을 복원·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주한 미군이 반환한 땅에 숲을 가두고, 주거지를 세우고, 아이들을 위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놀이터를 만들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군사시설로 더럽혀진 땅은 복원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92년 미국의회 자료를 보면 폭격장(사격장) 1km를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6억 달러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주둔군지위협정대로라면 주한미군 철수 이후 기지에 대한 막대한 환경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SOFA에 환경조항이 신설되도록 하는 일은 미래세대에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SOFA에 환경조항이 명시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주한미군이 한국환경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ASEM 바로보기

민중생존 외면한 경제발전 논의 신자유주의 앞세운 시장개방 주장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3차 서울아셈" 아시아, 유럽의 정상들이 2년마다 한번씩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하는 제3차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셈은 APEC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독점, 접근하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이 구상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출현은 한동안 여러 나라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뉴리운드 3차 각료회의가 세계 시민단체들에 의해 저지되면서부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 역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아셈 개최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국제회의산업과 관광,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셈 준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아셈은 회

민국들의 무역,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에 기여할 것이며, 아셈 회원국들의 거대 자본 투자로 침체된 국내 경제가 활기를 띠 것"이라고 말했다.

아셈은 사실상 세계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공공지출 삭감을 수반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020아셈회의' 운동을 펼치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이원재(한국외대4)위원장은 "IMF이후 구조조정만이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믿고 있는 김대중 정부는 이번 아셈에서 그러한 경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안으로 추진하려는 한일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무역과 투자에서 과감한 세금 감면 △노동조합이 파업했을 때 한국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기업주의 필요대로 노동자를 고용, 해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한일투자협



정은 아셈이 2025년까지 아시아와 유럽간 무역·투자 장벽을 완전히 철폐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장을 개방하려면 우선 다국적 기업 활동의 모든 장애요소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시장을 더욱 자유화 시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자동차가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산 값에 매각된 것을 보면 자유 시장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자산가치가 1조 2천억에 이르고 투자 금액이 5조원이나 되는 삼성자동차를 르노는 매우 싼 값인 6천 2백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르노는 2만명을 해고한 구조조정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투자 환경의 모습이다.

한일투자협정과 르노의 예처럼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은 기업 구조조정을 합리화시켜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시장 개방에 발맞추고 있는 아셈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의 개혁 반대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시애틀에서의 상황이 재현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동연계를 통해 본 대학문화

사설

때를 떠났던 일주일이었다. 동연계 기간이었던 지난 한 주는 학교전체가 술렁거렸고 들떠 있었다. 이번 동연계는 시작도 끝도 조용하기만 했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단 댄스 게임의 등장과 합방, 대중가요 일색의 분위기는 흥분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민중가요와 사회적 화두로 일관했던 80년대를 향한 향수는 사그라들고 전형적인 N세대 아이들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1년 사이 타임머신을 타고 20년의 세대차이를 극복해 버린 것 같다.

그 동안 대학문화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며 세대교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요즘 대학가는 조금씩 세대교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중적인 수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더 이상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민중가요 대신 강렬하고 리듬감있는 랩이 2000년을 풍미하고 있고 절도있는 율동 대신 현란한 합방, 테크노 댄스가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보다 대중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이번 동연계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한편을 본 기분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화려했던 특수효과를 벗겨내면 내용이 없는 할리우드식 영화처럼 메시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강의시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음악소리들은 정작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보여주었고, 현란한 춤동작들은 어대선가 본 듯한 식상한 것들이었다. 대학 인간의 순수함과 창의력이 없다면 이는 대학문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 곧 대동제가 열릴 것이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 기대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대중적인 입맛에 대학문화의 독창성이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태권도 공원이 경주캠퍼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는 오는 11월초에 연간 2조원의 관광수입과 20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태권도 공원 조성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까지 경주시를 포함한 27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각 지역마다 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시점에 엄청난 기대효과와 지역발전의 모색할 수 있는 태권도 공원이 경주에 유치된다면 본교에도 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창출에서 비롯되는 지역 인구 증가와 더불어 태권도 학과 같은 특수학과가 경주캠퍼에 신설된다면 본교 입학전락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고교졸업생수에 비해 대학정원이 초과하게 돼서 경쟁력 없는 대학은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경주캠퍼와 같은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하고 학과의 특성화를 모색해야 하는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주에 태권도 공원이 조성된다면 본교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권도 공원이 경주에 조성된다면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권도 공원 조성으로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흥분전락을 타 대학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에 비해 지역이 작은 경주는 다른 곳보다 열세에 놓여 있어 열악한 현상을 극복하고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주지역 주체들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아내야 한다. 현재 본교에서는 임베근 교수를 비롯한 몇몇 교수들이 태권도 공원을 경주에 조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교당국에서는 공원을 유치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본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주시와 연계해 홍보 작업에 협조하고, 태권도 공원 조성 이후 학교 발전을 위한 학사행정체계 개편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환 부주관 백승선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기 28 동대신문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우리가 세계를 읽고 세계가 우리를 읽습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JoongAng Ilbo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가 함께 만드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이미 세계 184개국에 선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JoongAng Ilbo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정상의 신문들이 전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국제뉴스는 물론, 중앙일보의 한발 앞선 정보까지 고급영어로 만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JoongAng Ilbo! 세계화 시대의 주역인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세계 19개국에서 발행하고, 180여개국에서 함께 읽습니다. 중앙일보의 NO.1 정보컨텐츠를 고급영문화해 국내뉴스 색으로 전합니다. IHT본부가 검증한 정통영어와 시사영어로 영어학습교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10월 17일 발행 구독문의: (02) 751-9222

동약로

학생회비 유용 의혹



'부패한 학생회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밝혀야 한다' 지난달 26일 각 학과실에 출처가 불분명한 편지 한통이 배달되었다. 이 편지에는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은 물론 전체 학생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를 비난하고 비난하는 부고들을 학내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생회에 날아온 한 통의 편지는 학생들의 공명감과 불신을 더하게 만들었다. "학우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학우 여러분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 그 이상의 권력 조선일보를 아시나요?

사실 조선일보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것이 가장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선일보를 보고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면 조선일보는 멀리 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는 요즘 대학생들의 특성으로 볼 때 조선일보는 대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조선일보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조선일보를 바로 알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대립과 긴장, 부패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개혁과 통일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학이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학문연마에 열중할 수 있게 된 데는 군사독재 시절의 희생적인 학생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

연재를 기획하며 지난 8월 지식인 기고 거부 선언 이후 최근 사회 각계 지식인들은 조선일보 거부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이에 본사 사회부는 대학연론으로서 허위·왜곡보도를 일삼아 오던 조선일보의 실체를 알리고자 '조선일보 제류 찾기'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 ① 조선일보 역사 바로보기와 실체 알리기
② 신문 편집자율성 확보와 소유구조 개선
③ '공수생각'으로 본 조선일보



언론자유 겁질쓰고 왜곡·날조 이제, 진실을 말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별로 거부감 없이 조선일보가 대학생들에게 다가 가고 있는 것이다. 깔끔한 편집과 아지각기한 정보가 어필하는 것일까? 정치기사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필요한 기사만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아마 조성모의 광고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건대 조선일보를 '아시나요'?

이제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막강한 대권을 가진 대통령도 조선일보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 권력의 힘으로 민주화와 개혁, 평화통일의 흐름을 역류시키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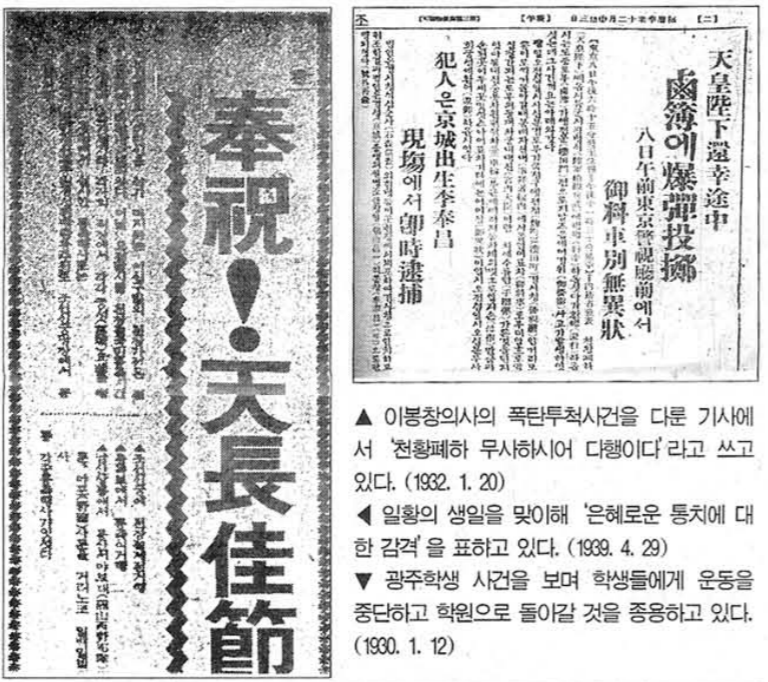
김동민 조선일보비대위시민연대 상임공동 대표

조선일보 친일보도 사례

“황국 신민화에 앞장서라”

광주학생사건 사실 '동요종의 학생제군, 책상 앞으로 돌아가라' "광주학생사건에서 발단이 된 학생시위사건이 전 조선에 확대된 오늘날에 있어 제군이 비상(非常)을 버리고 평상(平常)에 돌아와 고요한 책상 앞에 용기있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수탈 앞장 선 조선일보 "황국의 위무선양과 동양평화를 양어에게 맡기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 하여금 안심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을 다하게 하는 데는 총후에 선 일반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육 부추기는 친일매국행위에 앞장섰다.

히로히토에게 바친 용비어천가

조선일보는 '조선민중'을 '천황의 신민'으로 표기하는 자칭 '민족지'였다. 1939년 4월 29일자에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의 생일을 맞아 '천황지존'에게 '황공무지와 감격을 못 이기겠다'며 '신동아 건설의 성업을 수행하여 황도 일본의 위광을 빛내자'는 충성맹세를 늘어놓았다.

트렌드 분석의 왕으로 호평받는 미디어 이론가 N. 볼츠의 탁월한 저작! 구텐베르크-은하계의 끝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상황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수사학 판소리의 세계

외로움을 넘어 홀로움으로... 향동규 시인이 일반 속을 걸어 열린 밖으로 나가듯이. 흥미롭게 풀어쓴 판소리 개설서 판소리의 세계

깊고 어두운 지하 층계를 밟아 내려가면 그곳에서 있는 '나!' 미성년 김연경 소설집

게리 스나이더 강연회

한 호흡으로 숨쉬는 선과 시의 세계

불교에서의 시는 양면성 지녔지만 일부분으로 인정해야

숨쉬 틈 없이 사건들이 전개되는 이 세계에서, 명상의 행위라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등을 골추 세우고 단지 순간에 정신을 맑게 해주는 '한 호흡'의 명상이라 할지라도 개월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눈에 확 뜨이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이라는 여취는 많은 사람에게 신비하고 종교적인 느낌을 주지만, 단순하고도 평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색적인 정적과 침묵, 명상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입정(入靜)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 대다수의 길은 지루하고 평범하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정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몇 달 또는 수년에 걸친 명상의 실천이 그 수행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이해, 평정, 집중, 자기확신을 심어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깊은 정신집중의 전통은 모두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랜 것입니다. 명상은 내적인 성찰이며, 시는 바깥으로의 표출입니다. 명상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고,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자는 깨달음의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요, 후자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에서 어느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하한 시와 명상이 특별하고 색다른 것이라 어려운 것이라는 현대 대중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와 명상이 풀이와도 같이 오래되고 평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명상은 고요히 앉아서 생각에 잠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시는 노래와 이야기를 창작하고 또 그것들을 부르고 낭송하는 이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와 명상은 오래되고 평범한 것

시는 일찍부터 불교의 일부였으나 불교의 예술에 대한 태도에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사들은 종종 "가장 낮은 부류의 승려들이란 글줄에 빠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위대한 시인 몇몇은 선의 달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원에서 행해졌던 수행자들의 전통적 관습을 깨트리는 선문답과 그에 수반되는 생생한 무언(無言)의 몸짓의 교환들, 그리고 간결하고 암시적인 단순성을 지닌 중국의 서정시는 서로 영향을 주며 형성되어 왔으며 선사들과 수행자들은 늘 시를 썼습니다.

형식화된 공안(公案=話頭)수행에서 수행자들은 한문경전에서 뽑은 몇 행의 시구를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공안을 잘 이해했음을 입증하도록 종종 요구받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자꾸고'(대꾸로 글짓기)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러한 선문답의 방식은 일본 린자이(臨濟宗) 선사인 시게마루 소이쿠가 저술한 '선림'이라는 책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게마루 화상은 중국의 시와 경구에서 차용한 수백 가지의 대꾸로 된 구절들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가 번역해 놓은 시 구절들은, 어떤 소집단 내의 지혜라든가, 보다 큰 의미에 대한 은어적이며 함축적인 의미로서 선수행자들 간에 단순하게 주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스승과의 면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 이상의 깊이 있는 것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신보다 더 큰 마음의 깊은

뜻에 다다른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드물게 사용됩니다.

이 대꾸의 구절들은 문학적 비유로서 가치를 두기보다는, 이 비유를 바로 지금 실제로 현실화하는 훈련에 의해 제시되는 도전이라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자들이 상징과 추상을 현실로 되돌려 체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란 이런 가능성을 절묘하게 발전시키지만, 그렇다고 시나 경구 같은 자연스런 작풍과 거리가 먼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선과 시는 전통과 밀접한 관련

모든 시 전통이란 그 나름대로의 형식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에 형식화된 기법이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제도화된 종교도 있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시와 종교는 반드시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불교계는 수많은 깨달음의 시인과 노래하는 이들을 배출해왔으며, 그들의 작품은 경탄과 사랑을 받습니다.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그의 노래가 여전히 암송되고 있는 밀라 레파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하이쿠(일본의 전통적인 시 형식의 하나-역주)를 지은 바소가 그 중 가장 유명합니다. 그러나 시(문학의 세계)는 때로는 영적인 노정에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시는 비언어적인 마음의 상태와 우리 인간과 함께 태어난 야생의 체계인 언어의 선물 사이에서 미로를 향해합니다. 내가 선을 수행할 때 시상은 결코 나에게 떠오르지 않고, 나는 단지 선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연결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명상 수행을 따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나



마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함께 격조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여행과도 같이 자신을 넓히는 일입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시란 단상이며, 일체감 속에서의 유일무이함이며, 완전한 표현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명상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장식성과 또한 완전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결코 하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불교의 스타일이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할 수 있습니다. 시와 명상에서는 부끄럼이 없어야 하고, 자신으로부터 비밀이 없어야 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한 그리고 고급 저급이라는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것을 공경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때 순간을 포착하는 눈을 가지고 자유로이 주어진 것을 유희할 수 있는 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게리 스나이더
시인, UC DAVIS 대학교수
번역 김영민 교수(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구승희 교수의 환경이야기

(2) 생명공학

생명의 연금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무생물의 정보로 환원하고, 이를 설계, 편집, 프로그래밍하여 새로운 생명 조합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종들간의 경계를 허물었고, 개체 생명의 신성함도, 종들 사이의 우선성도, 상보적인 생명현상의 신비로움도 제거해 버렸다. 이제 신성하고 오묘한 것은 개체 종이 아니라, '유전자'이다. 아니, 유전자 속에 암호로 숨어 있는 '유전 정보'이다.

이와 같은 생명계의 질서 재편에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공학자들은 이렇게 반론한다. 인간이 더 이상 지고한 존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지금까지 인간의 무지로 인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이들 생명의 연금술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는데, 무엇이 나쁜가? 더욱이 생명공학의 엄청난 메리트에 견주어보면 '생명의 탈신성화'에 대한 도덕적 우려는 쓸데없는 근대적인 인간중심주의가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이 생명공학이 히틀러의 '사회우생학'보다 무서운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히틀러는 유전적 요소를 사회-정치적인 건강과 안정성의 유지에 사용했을 뿐인데 반해, 생명의 연금술은 지구생태계 전체를 완전히 이해가능하고, 통제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세계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인류의 욕망에 편승한 '상업적 우생학'을 선전하고 있다.

상업적 우생학은 어떤 구체적인 인격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익으로 어느 나라, 어떤 기업, 어떤 전문가집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래서 본래적인 악의 모습은 희석되어 버린다.

생명 연금술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이는 사람들에게 지구의 가용 한계를 벗어나는 필요와 욕망을 부추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일시적인 엄청난 인구증가에 이어 급격한 산악제한이 보편화할 것이다 - 지구사회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수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둘째, 환경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갈등, 인간의 잘못된 대(對) 자연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위계, 억압, 폭력의 독점 등 부적절한 사회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보면, 이 연금술의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갈등, 우수한 유전자형질 변경된 이른바 유전자 조작인간과 자연인간 사이의 갈등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갈등 이상일 것이다. 계급갈등이 존재하는 한 환경문제는 필연적이다.

셋째, 생명조작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출현시킬 것이고, 이는 지구 생태계로서는 엄청난 교란일 테고, 결국 파충류의 멸종처럼 모든 생물 종의 절멸로 귀결될 것이다.

기술의 역사를 통해 배운 바에 의하면 기술이 사회적 통제에 의해 소멸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연금술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문명의 역사는 또한 인류가 파멸의 기술에 저항하는 문화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명의 연금술, 그것은 21세기 문화투쟁의 핵심사건이 될 것이다.

게리 스나이더의 작품세계

자연과 인간의 화해 노래하다

게리 스나이더는 동시대 미국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스나이더의 경력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비트 운동과 같은 미국의 문학과 문화발전에서, 60년대에는 동양철학과 종교의 대중화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환경의식의 고양에서 앞장서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그의 시는 한마디로 동양과 미국 토착민의 신화를 인간과 자연의 화해에 연결시킨 열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게리 스나이더의 시는 에즈라 파운드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이미지즘, 그리고 차일스 윌슨 로버트 던컨의 열린 형식, 그리고 비트 시인들의 자유형식을 통합한 시이다. 자신의 방향, 일본에서의 선불교 수련, 그리고 자연과 경험에 대한 신화적 문화적 인식 등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서전적인 시라 할 수 있다.

스나이더의 시적 방향의 계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의 철학과 종교로부터 새로운 영혼의 뿌리를 발견한 때인 미국 남북전쟁 당시로까지 추적할 수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윌트 저수지에 은거할 당시 우파니샤드 경전 'Bhagavad-Gita'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으며, 랠프 월도 에머슨의 초월주의는 한무교, 불교 그리고 다른 동양철학에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

에머슨과 소로와 마찬가지로 휘트먼의 경우에도 동양은 유럽의 낡은 형식과 방법에 대한 유혹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미국의 진취적인 예술가들도 새로운 영감의 원천에 이끌리고 새로운 자아관을 노출시키며 영혼의 환희와 깨달음의 새로운 용어를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7일 덕암세미나실에서 강의중인 게리 스나이더

휘트먼의 동양의 원전과 경전에 대한 매혹은 20세기까지도 누그러짐이 없이 지속되어왔다.

에즈라 파운드는 아나이스 펠레로사의 중국상형문자 연구를 접하게 되어 이미지즘을 근간으로 하는 자신의 시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문학의 지역주의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태평양 너머로 동양을 마주보는 미국 서해안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인들이 문화의 경계선을 넘는 장대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현장을 찾아서 - 박인국 교수의 'RNA' 효소 연구

리보자임, 종양·암 치료제 새 지평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치유에 효과적



'리보자임' 연구중인 박인국 교수

올 여름 TV 연속극으로 방영되었던 'RNA'라는 공포드라마를 기억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납량특집극의 주제는 대체로 귀신이나 기이한 자연현상 등의 비과학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포드라마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이나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주제로 함으로써 과학의 급격한 발달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과학은 인류가 당면한 식량고갈이나 질병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명과학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는 RNA의 효소에 대한 연구가 본교 박인국(생물학) 교수 연구팀에 의해 수년간 진행돼 오고 있다. RNA가 효소적 정보를 가진 유전자 매개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RNA의 효소인 리보자임은 스스로의 유전코드에 따라 능동적으로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리보자임 촉매 활성의 기전과 그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항생제들이 리보자임의 구조와 촉매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암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을 이해하는데 바람직한 기초적 학술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RNA 효소의 촉매작용'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박인국 교수는 "리보자임 구조와 촉매작용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에 비해 국내에서의 연구는 작년에야 비로소 'RNA 연구회'가 구성될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리보자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보자임을 치명적인 종양이나 암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법으로 응용한 것은 현대 의학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RNA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보자임이 RNA 분자이기 때문에 세포 내 RNA 대사와 이동 등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리보자임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도구로써 유전자 치료에 응용하려면 RNA 구조와 기능에 관한 보다 정확한 학술적 이해와 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손상민 기자
ne09292@dongguk.ac.kr

우리는 '스포츠의 세기'를 살고 있다

산업·사회학 장르로 부각... 승리 지상주의 해결 과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광복할 만한 사회문화현상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고도산업사회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여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포츠 참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스포츠의 대중화와 고도화 현상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가수단으로서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까지 활용되면서 미래사회의 가장 각광받는 산업의 영역으로 평가 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20세기가 '스포츠의 세기'였음에 대해 스포츠 사회학뿐만 아니라 후세의 모든 역사가들 또한 의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프랑스의 쿠베르탱이 세계평화와 국제협조를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1894년에 조직하고, 이어서 고대올림픽의 부활을 실현시킨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대회는 명실 상부한 '스포츠의 세기'의 출발을 고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1904년에 창설된 FIFA(세계축구연맹)의 주도아래 1930년부터 개최된 월드컵 축구대회는 '글로벌 스포츠'로서 축구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원한 가장 적극적인 스포츠사회화의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전문가들은 축구에 대해 20세기를 대표하는 '히트상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를 '사커 축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사회체육운동(sports for all movement)의 국제추진기관인 TAFISA(국제 트림·피트니스 생애스포츠 추진위원회)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를 통해 10억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세기의 가장 대중적인 문화'일컬어지고 있는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성과 연명·인종·계층·주거환경·심신의 핸디캡과 무관하게 생활의 일부로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적극적인 인류의 출현에 대해 Palm과 Simonnet등의 학자들은 스포츠하는 존재로서의

스포츠, 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 교육과 사회화의 터전으로 강조될 전망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Homo Sportivus'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까지 이르렀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의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스포츠정책 수립을 위해 1985년 5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8회 유럽 스포츠장관회의'에서는 건강(health)과 사회화(socialization), 경제(economy)등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펼친 결과 '스포츠에 대한 투자는 건전한 투자임을 천명하며 '스포츠는 사회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해 교육과 사회화의 중요한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개인의 즐거움, 사회적 관계, 융합의 소중한 기회제공, 활기 넘친 시민에 의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서 더욱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스포츠는 이처럼 다양한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덴마크의 스포츠사회학자인 헤닝 아이히베르크는 현대 스포츠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즉, Citius(보다 빠르게) Altius(보다 높고) Fortius(보다 강하게)에 대한 욕구의 확대를 비롯하여, 포인트에 의한 퍼포먼스에 바탕을 둔 결과(기록·승리·업적) 추구의 극대화, 희생의 방향으로만 치닫는 '업적 스포츠'로의 가속화 현상은 승리 지상주의를 낳게되었고, 그 결과 경기에서의 부정행위와 도핑, 신체 및 언어에 의한 폭력행위, 참가기회의 불평등, 지나친 상업주의와 금전적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승리지상주의에 의한 조기 트레이닝 지도의 문제, 여성 선수에 대한 성적 학대, 스포츠에 의한 공해와 환경파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정적 측면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움직임에서 선전하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획득한 성적과 그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무게의 노력과 투자가 오버랩되면서 새삼 올림픽의 사회학과 경제학을 떠올리게 된다.

이덕성 교수
인문대 사회체육학과

각 대학 반성폭력 학칙제정 움직임

성폭력, 남녀간 불균등한 권력 관계 학칙개정으로 왜곡된 성문화 바로 잡아

어느새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에게도 성폭력이 성희롱이라 하는 단어를 일상적인 생활언어가 되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아니라, 성폭력을 드러내놓고 문제삼지 못하는 문화적 억압이 존재해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성폭력은 이제 금기시할 수 없는 담론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그동안 김보은, 김부남사건 등 몇 가지 상징적인 성폭력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성폭력이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인권을 짓밟는 폭력행위라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담론화의 중요한 배경이다.

최근 들어 대학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 성희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

리움을 포함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을 사회의 남녀간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의 표현으로 보면서 성차별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통제로 분석한다. 특히 브라운밀러 같은 이가 보기에 강간이란 성을 통한 남성의 권력행위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며 따라서 강간은 남성에게 여성을 종속상태로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남녀간의 권력이 불균형하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적 관계에의 강제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흔히 데이트 강간에서 변명으로 통용되는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라는 통념은 성관계가 남녀간의 애정이나 친밀감을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상호교감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간과한다.



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서 이를 듣고 판단하는 제3자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폭력에 대한 이해, 성별,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그 사건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여부가 판가름나기도 한다.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된 성폭력 특위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공의의 성폭력에는 협의의 성폭력과 가정 폭력이 포함된다. 협의의 성폭력에는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 보다 성격적인(sexual) 폭력을 강조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성폭력은 강간을 비롯한 성적 희롱, 추행 등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

리적으로 느끼는 불쾌감, 공포, 두려움을 포함한다. 이 수 자

성신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반성폭력 학칙제정 난항

비민주적 제정절차·구성원 무관심

서울 시내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이 대학 구성원의 낮은 의식 수준과 몇몇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한 데 이어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져 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오던 대학 당국들도 반성폭력 학칙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반성폭력 학칙 제정이 때를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대학 당국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학칙

에 처벌 조항만을 집어넣는 등 유명무실한 학칙을 급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학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대학은 학칙 제정 절차를 광범위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학칙을 제정하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편, 연세대는 성폭력 예방 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학교 당국과 합의 하고 제정 작업 막바지에 들어갔다.

성폭력을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성폭력의 예방과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두는 등

조항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이에 아주대학교 총학생회는 "가해자의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대학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이나 우리의 문제의식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을 발의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는 성폭력 예방 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학교 당국과 합의 하고 제정 작업 막바지에 들어갔다.

성폭력을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성폭력의 예방과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두는 등

성폭력 사건의 처벌과 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의 경우도 합의 과정에 서 학생을 배제한 채 진행해 이견을 빚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밖에 학내에 아직도 만연한 남성우월주의와 기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구성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도 예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려대는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고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학내 여론형성 노력을 해왔으나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고려대학교 여학생 위원회는 가까운 시일내에 학교 당국과 공식적인 논의창구를 구성하고 오는 12월에는 2차 공청회를 열어 학내 여론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의 정혜선씨는 "학교측은 성폭력의 심각성보다 요즘 시류에 동참하는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제정 자체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대신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청회를 활발히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은 대학의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칙제정은 물론 학생자치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성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김진아 기자 pazama@harmail.net

남성위주 사고방식 성폭력 문제의식 결여

서로의 성 존중하는 올바른 성 인식 확립해야

새내기 환영회, 동아리 모꼬지 등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는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술 한 번 따라 보라"고 시키는 것이다. 옆에 앉히고 어깨나 팔 등을 쓰다듬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행동을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끼고 항의하면 좋은 분위기를 망친다고 핀잔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학생회(회장=김박선경·행정4)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화장 좀 해라", "착시한데" 등 상대방의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농담에서 시작하여 음담패설 도 서슴지 않는다.

음흉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술기운을 빌미로 영달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일은 다반사이며,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거나 심지어 강간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수업 시간에 교수나 강사 강의의 외모를 척도로 여성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여성의 몸을 자판기에, 남성을 돈을 넣는 사람에 비유하여 여성을 단순히 남성 쾌락의 도구로 비하하는 사례가 있다.

학내에서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농담이나 장난의 범위를 넘어 성폭력으로 심화되어도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학생 자신이 목인하기도 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 사고 방식에 있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성을 존중하는 올바른 성 인식과 가치관 확립이 중요하다.

캠퍼스 성폭력 문제 해결, 대부분 '하지부지'

성폭력 사건의 책임소재 불명확한 경우 많아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라 불리며 성폭력과는 거리가 먼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성폭력 박물관'이라 불리는 등 대학도 더 이상 성폭력 안전지가 아니다.

대학에서 발생한 많은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하지부지' 되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예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성희롱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시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울대 정영호 교수 성희롱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 92년 신교수의 조교로 취직하던 우조교는 상습적으로

신교수의 성희롱을 겪었다.

성희롱에 저항한 우조교는 1년만에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시작되었다. 이후 3차례의 판결을 거쳐 6년 만인 지난해, 고등법원은 신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해서 5백 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의 정정현씨는 "신교수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뿐 국가와 학교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반쪽 판결"이라며 "신교수는 아직도 학교에 남아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을 사회범죄로 바라보기보다 피해자의 인격 문제로 몰아세우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해자인 신교수보다 피해자인 우조교의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면서 '우조교 사건'이라 칭해지게 되었다.

실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보다 바람직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지난 98년 고려대 학생회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그 예이다. 학생회 간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총학생회장 김모군은 여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했다.

이후 총학생회와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

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총학생회장은 수 차례 사과문을 쓰고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의 오희정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등 완전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캠퍼스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공개 대자보를 통해 사과하거나 가해자가 여성 단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하지만 단순히 대자보를 붙인다고 하는 방식으로는 대학 내에 깊숙이 박힌 성폭력 문화를 뿌리뽑을 수 없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학칙제정이다. 이는 대학에 새로운 성문화를 유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장기해외연수자 선발

- 1. 지원자격
1) 불교학과 박사 논문 준비자를 우선으로 함
2) 본 연구단 신진연구인력 (계약교수, post-doc)
3) 지원자 요건 : 토종 550점, 일본어 능력시험 2급 기준
2. 선발인원 : 0명
3. 연수 예정 학교
1)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2) 일본 대정대(大正大)
4. 연수일정 : 2001년 1월 ~ 6월 (6개월)
5. 제출서류
1) 외국어 능력 확인 증명서
2) 지원서 (http://www.dongguk.edu/ → bk21 홈페이지에서 다운)
3) 연구실적물 목록(특허포함, 제목, 연구자, 발표자, 발표일자, 논문게요순으로 기재) 1부
4) 연구계획서(2,000자 내외의 분량) 1부
5)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6)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사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각 1부
7) 연구실적물(석,박사 학위 논문과 1996년 9월 1일 이후 발표된 논문, 저서등) 각 1편
6. 선발방법
1) 외국어 능력 2) 연구업적 3) 면접
7. 제출처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교수회관 131호 ☎ 2260-3759)
8. 마감일자 : 2000년 10월 20일
* 연수비용은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사업비에서 지원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무역논문 현상모집

- 한국무역협회·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21세기 한국무역을 이끌어갈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무역관련 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이번 현상공모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우리무역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관심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응모자격 : 전국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생
2. 주제분야
▶ 한국무역발전을 위한 21세기 무역전략
▶ 정보화시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 벤처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
▶ 새로운 통상환경에 맞는 무역지원제도
▶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 (주제별 주제는 자유 선택)
3. 분량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A4용지 15매 내외)
4. 마감 : 2000년 11월 10일
5. 당선작 발표 : 무역의 날 전후(11월 30일) 중앙일보 지면
6. 심사 :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시상내용
▶ 최우수작(1편) : 상금 500만원과 상패
▶ 우수작 (2편) : 상금 200만원과 상패
▶佳作 (3편) :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장려상 (4편) : 상금 50만원과 상패
▶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 시상
8. 제출물 : 논문 1부, 논문작성 디스켓 1장, 재학생증서 1부
9. 보낼곳 : (135-72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4701호 한국무역협회 경제조사과
10. 문의 : (02)6000-5156~7

한국무역협회·중앙일보사

대학생 영어 패널 토의

- 대통령직속 여성특위가 주최하고 한국걸스카우트 연맹이 주관하는 "대학생 국제지도력 양성을 위한 'Young Women 2000 (제5회 대학생 영어 패널 토의)'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이 학생복지실 및 각 단과대 교학과에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행사취지 : 내일의 시민사회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세계 공통의 과제인 양성평등과 평화에 대해 같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국제적 리더십을 증진하도록 한다.
2. 주제 :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21st Century (양성평등, 21세기를 위한 발전과 평화)
3. 일시 : 2000. 11. 11(토) 14:00 - 17:30
4.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5. 참가대상 : 전국의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팀)
6. 참가비 : 10,000원
7. 참가방법
가. 참가자(팀)
▶ 10. 16(월)까지 참가신청서(참가신청서는 걸스카우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영문 원고 제출 (mysong@girlsout.co.kr)
▶ 10. 20(금)까지 참가비 송금
나. 참가인 : 행사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
8. 심사기준
가. 원고(영어원고 작성 및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
나. 5분간의 프리젠테이션(주제 전달의 효과성 정도)
9. 시전워크숍 : 2000. 10. 22(일) 10:00 - 17:00 전일
10. 프리젠테이션 분야 : 아래 문외처로 문의바랍니다
11. 문의처 : www.girlsout.or.kr(홈페이지)
(TEL : 02-722-6801-7, Fax : 02-733-3013)

한국 걸스카우트연맹 중앙본부 국제교류팀

총여 · 학교 제정 둘러싸고 의견 엇갈려

학교 "이미 제정돼 있다" ... 총여, 성폭력 개념 불분명 교수적용 제외 문제제기

학칙에 명시된 성폭력 관련 조항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둘러싸고 본교 총여학생회(회장=김박선경·행정4)와 학교당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학교당국은 성폭력 처벌과 성차별에 관한 상담 센터를 운영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학칙 제13장(규율·징계·포상) 제 62조(징계)

-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을 가할 수 있다.
- 7. 교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한 자.

학생준칙 제2장(생활 및 태도) 제 2조

- ⑤ 학생들은 학생 상호간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며, 특히 남녀 학생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성차별에 관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업지도 및 상담) ② 남녀 성차별에 대한 상담은 학생복지실 및 학생상담실과 여학생실에 한다.

을 살펴보면, 학칙 13장 62조 1항 "총장은 학생이 다음에 해당할 때 징계처분을 가할 수 있다. 교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한 자"와 학생준칙 2장 2조 5항 "학생들은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성차별에 관한 언행을 해서 안된다"이다. 이는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성차별·성희롱의 개념과 적용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교수와 직원이 학칙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총여에서 제기한 반박사항

-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행위에 대해 나와있지 않다.
- 학생들만 언급하고 있고 교수들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다 (학칙 제13장 62조 1항, 학생준칙 제2장 2조 5항)
- 학생상담실, 학생복지실, 여학생실 모두 전문적인 상담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학생준칙 제2장 제4조 2항)

학생준칙 4조 2항은 "성차별관련 상담은 학생복지실 및 학생상담실과 여학생실에서 한다"고 성폭력 상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내 성폭력 상담소는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상담센터와 학생복지실은 각종 학생 상담과 업무를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여학생실 역시 성폭력에 대한 자료만 비치하고 있을 뿐 전문 상담원이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학교당국은 성폭력 사건 처리를 학칙보다 형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면 학칙보다 형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소송을 거치게 되면 피해자의 신상 보호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대학 자체 학

칙만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여학생회가 제시한 학칙 개정 요구를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성희롱이 학생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학내 구성원 모두를 포함할 것 △불분명한 성폭력 규정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 △진상조사와 처벌 절차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들었다. 총여학생회는 상식적인 선에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벌과 진상조사는 구성원에게 공개·동의를 거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교수가 성폭력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교수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인사규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 이 직권을 남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처벌된다"고 설명했다.

학교당국은 성희롱 개념은 주관적이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피해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총여학생회는 학교당국과 계속 논의를 벌이고,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한 학칙 개안을 올 하반기에 학교당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과대별로 학내자치규약과 학생회칙에 반성폭력 회칙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중 기자 dizzo20@dongguk.edu

언론비명

언론 권력에도 포르말린

언론인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다. 워낙 많은 학생들이 언론사 취업을 원하다 보니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는 것과 기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 되고 말았다. 한국에서 언론인이 되려면 관련 전문 과목을 열심히 수강하는 대신 도서관에 틀어박혀 고사생 처럼 시험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합격 후 국가로부터 연수를 받는 일반고시생들과 달리, 언론고시에 합격한 신입 언론인들에게는 체계적인 언론전문 수업이 제공되지 않는다. 수습기자들은 대부분 선배들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을 뿐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과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언론의 전근대적이고 고질적인 병폐가 답습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최근의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은 다시 한번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실상을 보여주었다. 지난 달 8개의 신문사와 방송사가 37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세명의 통조림 제조업자들이다. 이들은 1998년 7월, 변태기 통조림을 제조하면서 방부제로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했다고 해도 원료에 포함된 것인지, 첨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검찰의 발표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할 뿐, 혐의 사실을 부인한 피의자들의 주장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가 법원의 유죄판결과 동일시 된 것이다. 심지어는 검찰의 발표에도 없는 사실을 덧붙여 과장보도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통조림에 포르말린 범벅"이라고 보도했고, 한국일보도 "포르말린 통조림 유통기한 늘려라 변태기 등에 살포"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포르말린 검출량은 1kg당 최대 0.19mg에 불과했다. 건실한 한 중소기업인 "돈벌이에 열인이 된 살인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사건은 한국언론의 오만함과 안일함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굳어진 반인권적 취재보도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고픈 직장인들 언론직종은 높은 임금, 두둑한 한지, 각종 세제특혜를 누리면서 권력과 명예가 함께 주어지는 최고의 일자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의 윤리의식은 소득과 반비례로 계속 추락해왔다. 다시 배고픈 직업으로, 그래서 인기없는 직업으로 되돌아가자 진실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언론인들로 거듭날 것인가?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교 성폭력 사건 해결절차

90일의 유예기간 사건 축소·왜곡 우려

성폭력의 범위·징계 모호 ... 법령 제정 요구

성폭력 사건은 실제 발생 빈도에 비해 신고가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주위의 왜곡된 시선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 해도 어디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본교는 성폭력이 발생하면 학외와 학내로 나누어 처리한다. 학외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검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고소가 접수되어 검찰이 혐의사실을 조사, 구형하여 본교에 통보하면 학교 당국은 검찰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신분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가한다.

학내에서 처리하는 경우 가해자가 학생일 때에는 학생처에 의뢰, 여학생실과 학생복지실, 학생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다.

그리고 교수나 직원일 때에는 인사관리팀에 의뢰, 고발이 접수되면 진상조사 위원회가 조직된다.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진상조사 위원회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징계의 종류, 징계 요구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징

계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절차가 끝나 사건의 판결이 나면 적용법령에 의한 징계가 효력을 발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학교 법인 동국 학원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리기간이 길어 피해 사실이 축소·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폭력과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지난 3월 1일 학칙과 학생준칙에 3개 조항이

성폭력가해자 처벌절차(교수·직원일 경우)

1. 인사관리팀/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사관리팀에 의뢰
2. 진상조사위원회/고발이 접수되면 진상조사 위원회를 조직 →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 인적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 요구의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3. 징계위원회/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에 관한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간 기한을 연장)
4. 유예기간/징계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 →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
5. 적용법령/사안이 판결된 징계법령 발효

신설되었지만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총여학생회(회장=김박선경·행정4)는 성폭력의 범위와 징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대구·경북지역 취업채용박람회

1. 일 시 : 2000. 10. 14(토)~10.15(일)
2. 장 소 : 대구산업정보대학 성요셉관
3. 주 관 : 대구경북취업채용박람회 추진위원회
4. 행사참여 차량 이용 접수처 : 취업지원팀
5. 접수기간 : 2000. 10. 4(수)~10. 13(금)

경주캠 취업지원팀

10월 심리검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심리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매주 화요일 10시	매주 목요일 16시
검사종류	MBTI검사(성격유형검사)	성격진단 검사
MBTI검사(성격유형검사)는 인간의 성향을 4가지 지표 즉,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준, 생활양식으로 나누고 이들을 조합하여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면, 진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일만할 때 인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격진단검사는 안정성, 지능, 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동조성, 남향성, 충동성, 우월성 등 자신의 성격적인 개성을 알아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성격검사는 현재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신청접수 학생상담실(원효관 2층)에서 수시로 접수받습니다.

*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문의 : 770-2050)

경주캠 학생상담실

동국참사람봉사단 사회봉사단원 모집

아직도 우리사회는 젊은이들의 진실한 눈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2000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 이들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교수, 직원, 재학생
2. 신청서접수기간 : 2000. 9. 21(목) ~ 10.11(수)까지
3. 봉사활동기간 : 2000. 10. 2(월) ~ 2000. 12. 1(금)까지
4. 접수처 : 학생처 학생복지실(☎770-2048~9)
5. 평가
 - 가. 봉사활동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봉사활동에 따른 소감문을 봉사단에 제출
 - 나. 학점은 1학점(pass)이며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 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단 학기당 1학점에 한함).
6. 학과 및 동아리 사회봉사 프로그램 연중 공모
 - 가. 7인 이상이 참가해 3개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학과와 동아리
 - 나. 채택된 프로그램 : 지원금 지급
 - 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학생복지실
7. 유의사항 : 2000학년도 2학기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봉사활동은 사전에 신청서를 참사람 봉사단에 제출하여야 봉사활동 및 우수장학선발시 봉사점수를 인정 받을 수 있음. 차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동국참사람봉사단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동국인들이 함께 합니다.

경주캠 참사람봉사단

적직검사 및 특강실시

1. 접수기간 : 2000. 10. 2(월)~10. 27(금) 오후 5시까지
2. 인 원 : 선착순 200명
3. 대 상 : 동국인 누구나
4. 접 수 비 : 1,000원(검사로 6,000원 중 본인부담 전액)
5. 접수장소 : 여학생실(학생회관 3층)
6. 기타문의 : 770-2056

1차 적직검사	2차 취업특강
일시 2000. 10. 31(화)~오후 2~3시	2000. 11. 8(수)~오후 1:30~3시
장소 소강당 II(원효관4층)	교육매체실(도서관3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직검사 (검사소요시간 : 20분) - 검사결과 통보 - 검사에 대한 질의응답 - 적성진단 - 취업진단(취업일지) - 기업에 접근방법 및 면접전략 	이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 - 경희대, 부산대 외 30여 대학에 검사 및 특강 - MBC TV, Radio 면접특강 진행 - 산업인력공단 면접전략 강사
기관 및 강사	(주)ARIO P&C

몽골 겨울옷 보내기 행사

1. 의류 모음기간 : 2000. 10. 2~12. 30까지(두달간)
2. 의류 모음장소 : 학생회관 3층 여학생실
3. 문 의 : 여학생실(770-2056)

*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은 재활용 가능한 두터운 의류나 담요 등이 있으면 '1인 1점 동참하기' 마음으로 주저마시고 본 실로 연락 주십시오.

경주캠 여학생실

창업경연대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주최 제4회 서울지역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을 바랍니다.

1. 참가대상
 - 서울지역 대학(원)재학생 창업팀(4~7인)단위
 - * 팀 구성시 여러대학의 공동참여 및 지도교수 참여가능
2. 참가분야(6개)
 - ▶ 정보통신(IT, 인터넷, 전자상거래, 게임, S/W, H/W개발)
 - ▶ 전기,전자
 - ▶ 신소재,자동차(기계,기기,부품등)
 - ▶ 환경,생명공학(의료,식품등)
 - ▶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광고,출판,관광,캐릭터등)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00. 10. 16 - 10. 31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 *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oul.smba.go.kr>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소나기

조선일보를 아시나요?



△객관적이다. 심판은 독자들이 하는 것이다. △왜? 뭐가 문제야? 좌익·우익 그런가! 근대 사실 조선일보가 신문을 잘 만든다는 거 다른 일간지 기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 아냐? △무서움을 모르는 신문. △말에 안 듣다. 왜냐!! 조선일보를 절대 읽지 않는다. '조선모가 매일 읽는다고 허위 광고를 하나까...' △응. 왜? △'조선일보'는 모르겠고 '아시나요'는 알았는데...

△신문사는 조선일보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별로 보는데... 지나친 '인티'는 싫어... 어느 신문이나 '부정적인' 면은 있다. △현 정권에 불어먹고 사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자! △미국의 하수인. △이게 신문이냐? 잡지지! △정부 대변인 조선일보. △조선모는 아시나요(?) △조선왕조 5백년 역사에 걸맞은 신문. △지금 변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옛 명성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인이 보는 조선일보 우리나라 역사의 대변인. D의 대변자 조선일보.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에 의한(?) △정부의 영원한 친구 조선일보 파이팅! △조선일보 신(新)문인 아니라 구(舊)문. △인티 배리리 일보. △음~ 딱 하나 불 만한 게 있지!~ 광수생각 △인티(똥)=조선일보(?) △반대, 관제인론 등등... △말 많고도 '일간지 판매율 1위' △조선일보보 보수주의로 알고 산다(?) △조선..조선..조선..조선 좀 해아졌어!!! △신문이기를 포기한 신문. △조선일보 식구끼리 지지고 볶고 튀기고(?) △검대기 벗어라. △조선일보를 왕따 시키지마라!! △조선일보에서 정부와 잡은 손을 이젠 놓아라 △옛날에 잘나가던 조선일보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왜 이런 사태까지 왔나요. △언론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공정하고 올바른 소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오늘의 글

유병문 (불교대 불교4)

시집 '양수리에서'의 작가·96년 서울캠 총학생회장

꿈을 향한 인내 자아 성장으로 거듭나

"소중한 땀방울이 모여 빛을 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라며 이 야기 내내 환한 웃음을 잃지 않던 유병문(불교4)씨. 그는 96년 본교 서울캠 총학생회장이면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당선되어 잘 알려졌지만 동국문학회 출신으로 '양수리에서'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최근 출소한 후 여느 대학생처럼 수업 들으랴 사람들과 만나랴 학교 안을 바쁘게 누비는 그의 모습이 마치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처럼 느껴졌다. 학생운동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가 속했던 한총련은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한총련이 참여한 그 해 통일대축전에 정부는 유래없이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그 사건때문에 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항상 주변을 살펴야 했고 잠시도

마음을 늦출 수 없는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8월, 2년 간의 도피 생활을 중단하고 조계사로 들어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국50주년을 맞아 단행된 8·15특사에서도 그에 대한 수배는 해제되지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라는 말에 농성 기간의 힘든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다. 5백여일 간의 힘겨운 농성 후 새 천년에는 더 이상 양심수가 없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자진 출두했다. 하지만 그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한총련이 참여한 그 해 통일대축전에 정부는 유래없이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그 사건때문에 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항상 주변을 살펴야 했고 잠시도



몇 년만에 가족과 함께 보낸 이번 추석은 그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던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상가된 표정으로 당시를 설명했다. 졸업 후 어떠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는 항상 '꿈'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는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항상 굳건히 서 있는 남산의 소나무처럼 단결같이 꿈을 추구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보다 세심한 기사 필요

동대신문을 볼 때마다 다른 면에 비해 문화면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지난 호에 문화면에서 다룬 '튀는 공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나무 벤치부터 화장실까지 깨끗하고 예쁘게 변해 가는 우리 학교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룬 기사였다. 깔끔하게 바뀐 학교 내부와는 달리 그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강의실에 대해 아쉬움을 남긴 부분에 특히 공감했다. 학교내의 디자인변화와 관련된 기사와 함께 '이색 공간 강력 추천'이라는 기사는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학교 외의 장소를 소개하였다. 새롭게 변한 지하철 환승통로와 이대 앞 광수생각 카페, 경주 재환을 카페가 재미있게 소개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특이하고 이색적인 공간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너무 빈약한 정보가 아 니었나 싶다. 이형구 (경영학부2)



(제1303호 10월 2일자)

관련사진 선정 미흡

한국축구가 시드니 올림픽 8강에 오르지 못해 실망감을 클 때 본교 축구부가 30년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여 큰 위인과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동대신문에서는 1면 통기사로 선수들의 활약상과 코치의 인터뷰, 총동창회의 격려 등을 상세하게 다루어 학교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사명을 다했다고 본다. 하지만 기사에 비해 옆면 사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 관공경 없는 스탠드와 공사중인 건물을 배경으로 한 선수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조금 더 생생한 사진이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성규 (경주캠 기획예산팀)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upress 나무누리 · 동대신문 천리안 : dgupress

수업고려하지 않는 풍물연습

한가위를 앞둔 7일 명진관 앞에서는 10여명의 풍물패가 쾩쾩 쾩을 치고 있었다. 교직원과 교수님이 말리는 듯 하였으나 아랑곳없이 계속 풍물소리를 울려댔다. 수업은 중단되었고 5분여를 기다리다 결국 수업은 일찍 마치고 되었다. 서울캠퍼스는 교정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도서관이나 팔정도에서 열린다. 그때마다 도서관 학생들은 장소가 없으니까, 혹은 그래도 도서관은 방음이 되니까 등으로 충분히 양해를 한다. 하지만 명진관은 다르다. 일단은 방음 시설을 제대로 안 해준 학교측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날씨가 더우면 창을 다 열고 수업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꼭 그 앞에서, 그것도 왜 풍물을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그 소리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풍물을 하여야 한단 말인가? 10여명이 나름의 이유로 풍물을 하는 자유도 소중하지만 40여명의 학생들, 더 나아가 명진관의 수백명 학생들이 수업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비단 이러한 문제가 명진관에서만 끝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명진관과 동국관, 학술문화관 등에서 하루종일 강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특이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풍물을 하는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하겠지만 학교측에서 하루빨리 연습공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김상현 (사범대 국교3)

재학생 편의시설 관리 시급

경주캠퍼는 소규모 캠퍼스이지만,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들어서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대운동장을 지나거나 사용할 때는 항상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대운동장이 작은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설마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점은 학교측에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 줘야 할 문제이다. 야구 경기가 있을 때면 축구 선수들의 야구공 피하기 등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미식 축구부는 공간 찾기에 여념이 없다. 다행히 요즘 소운동장이 부활되면서 야구 경기는 대운동장에서 찾아 볼 수 없게 됐지만, 다른 종목

을 전부 소화해 내기에는 우리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지반이 갖춰진 곳은 하나 뿐이고 최근에 들어난 농구 골대의 위치도 잘못 선정되어 있다. 또한 축구장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 잔디 구장으로 착각하고 슬라이드를 펼쳤다가 온 몸을 다치기 십상이다. 학교가 최근 본관 신축을 마쳐 두고 공간이 협소한 대운동장에 복지타운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신입생을 위한 복지 타운 건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학교는 그에 앞서 현재 학내 시설부터 철저히 관리해 재학생의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박진우 (법정대1)

금연홍보 통한 면학공간 조성

지난 9월 14일부터 학교 도서관내 흡연휴게실을 제외하고 전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마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몇몇 학교에서는 수년 전부터 강의동과 도서관을 비롯해 전 건물 내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일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밀폐된 공간 내에

서 담배연기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예전까지만 가끔 강의동의 복도에서나 도서관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에 불쾌함을 느끼곤 했다.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요즘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공공장소 흡연문제는 그 심각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직 홍보와 훈련이 되지 않은 탓인지 금연구역 지정이 된 후에도 버젓이 도서관 로비나 일반 휴게실에서 연기를 뿜어대는 학생들이 있다. 더 많은 홍보와 질책으로 보다 나은 면학공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은 보건법령에 의한 일부공간의 조치이지만 학교와 학생회의 캠페인활동을 통해 학내 건물 전 공간에서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면 한다. 더불어 금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내 문화가 앞서가는 대학으로서의 에티켓을 지켜나가는 중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진희 (인문대 국문4)

가상대학, 정상운영 시급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기 위해 이번 학기에 가상대학 강좌를 2과목 듣고

공중문화 확립 필요

한꺼번에 2백명이 듣는 교양수업이 끝난 후 약 6명 남짓한 좁은 화장실을 가



동학광장

목격합니다 축하합니다 △서정자 생일 축하해. -ToTo 회장 △헤인&지훈 커플!! 1주년(10월9일)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한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지현 △유리아, 결혼 축하한다. 구세 너무 구박하지 말고 잘 살아야해~ -주영 △김희아~ 남자친구 생겼잖아? 우쭐 *~~* 축하해. △다원아, 이쁘고 씩씩하게 자라라. 아빠 너무 못살게 굴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볼수록! -이쁜언니 △소영아 7백원 먹구 언제 소냐? △정원 오빠랑 소원아랑 열레리 플레리. Perfect couple! △경수형 결혼 축하해!!! 축하합니다 △매비연 조선일보 기사팀 and, 영화제 준비팀 수고 많이 했다. △부사장님 그리고 각과 축전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연씨 잘 치른 집행부·자부단·운영위 모두 수고 했다. -봉사

△국문과 동문 체육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 국민인 △학기 중에도 닭갈비 알·바 하느라 힘들쥬? 당신 열심히 수고하구... 나도 닭갈비 좋아한다. -ONG △아리랑 쟁님, 동연제 하느라 수고 하셨어요. -h 열심히합니다 △군법사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국아. 열심히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었음 좋겠다. -your friend △선숙, 선미, 상희아!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잘 치르자. 파이팅!! -ppuzic △Fearless Dawn MT 사수! 멋지게 놀자 열씨미 놀자! -4th 매니저 △희곡분과, 합동지만 고지를 향해 달립니다. -SS △현아! 열심히 해라. 동국 문학회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다. △인규야. 작품 멋지(?)더라. 앞으로도 열심히! 알립니다 △국문과 93학번 이유리와 91학번 구태완이 10월 28일(토) 오후 1시 30분 잠실역 연리지 예식을 특실에서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아는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꽃

그리고... △역교과 일꾼들, 짜증 좀 그만 낚시다. △하림 축전 7개과 신명나게 놀아봐요. -일사장 △아리랑, 말... 공연 넘 좋았어요. -팬 △A-Jax 공연 잘 봤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모습이 보기 좋군요. -지과부 공주 △탈! 10월 26일 공연 준비 힘내요... 특히 1학년들 힘내세요. -지랑스런 탈쟁미남 △이쁜 사과대 현정! 도와줘서 진짜루 고맙구 내가 정말 밥 소도야 만다. -손 △큰 맘 먹고 산 하이테크 켄 잃어버렸다. 돌아와라... 테크야~ △우현, 만식 비쁘다고 안 만나줘서 미안하다. 언제 한번 만나자. 내가 크게 한방 쓴다. △재혁오빠, 공연 못봐서 미안해요. -h △소영아 니가 빌려준 볼펜 잃어버렸잖... 미안. 용서해줘 △상지야. 장학금 받았으면 밥을 사자! 언제 살거야? △광원아 오빠, 쥐포 고마웠어요. 앞으로 또 맞난거 많이 사주세요~ △덕근오빠, 매번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마워요~ -(?)의 형기 △정미야 힘내라. 너의 솔로앨범은 최고다 -TOEIC 친구 △Hand 그리고 경덕, 스님을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K·H·J

안방클럽 축하합니다 △"추카추카" 웃었지만 지현이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짹짹! 글구 승현오빠랑두 2백원 3백원 천원까지! 축하해! △현우야~ 너의 20번째 생일(10/8) 축하해~ 인사 너무 맘 놓구 솔직에 갈 수 있겠구나. 성인이 된거 축하하구... 앞으로두 이쁜 모습 간직하길... -너의 친구 미리가 △축하해주세요! 서기 오빠랑 자랑 5백원(10월 8일)입니다.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행복했음 좋겠어요... -영구 △봉근선배... 자대배치 받은거 축하해요~ 열심히 국왕의 의무를!! 다하고 와! 오빠~ 사랑해~엽! 오빠 힘내요... 미리가 있잖아!~ 봉오빠 파이팅! -주이가 △불태의 새로운 집부로 들어오신 불사위 위원장 조경제님 축하합니다. -740 △주현... 너의 첫 공연 정말 축하하는데. 단단히 한테 쓰래이... -영구 △K군, J양 약의 구원당이에 온걸 축하한다. -이까가 △나의 열 좌공 영영한 칼~12일 너의 생일인거 알지? 정말 많이 축하하고 우린 실, 바늘 사이야~ 도망갈 생각마.

△우리 식구가 늘었어. 축하해 주세요. 앞으로 적음 잘 하고 좋은 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축하하셨습니다 △불교학과 학생회 임부(명지, 근필, 명인, 상숙, ...)학술제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파이팅합시다! -1102 △불교아동학과, 불교학부, 국악과 학술제 및 정기공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세요. 그러만 힘내세요! -뽕찌기197 △탈패~ 안동하회마을을 놀러갔다 왔지요. 국제 탈춤 페스티벌~ 부럽조!! 탈패 화이팅♥영근선배 응원한다고 수고했어요. 열심히합니다 △3년만의 부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인문대 민중 노래패 무·쇠·나·팔! 다들 열심히 하세요. 10월 17일 공연 무사히 치르기를...! -생영이17 △불교아동학과 과동아리 동심!! 공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웃으면서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pooh △필하모니 우리 집부 14기 열씨미 하자! 공연이 끝날때까지. 하나만 마음으로... 화이팅! △새로운 하루에 시작은 아침이고 한 학기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불·연 임부 여러분 파이팅! -980는 학우가 △사복과 백상체전 모두 모두 열심히 합시다. -2000 알립니다 △10월 7일 부터 15일 까지 영상 전시회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해요. △J.M.S 아 10월 15일 저녁 6시에 돼지우리방으로 집합해!! 안오면 일취?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살벌 격정은 이날 만큼은 하지말자. -반쪽소녀가 그리고... △오빠 기다릴게! 잘 챙겨와~ -오빠의 천사 현주 △태희선배 군대 잘 갔다오셔영~ 현주, 선배 제대할 때까지 잘 모시고 다닐게요... 염려마세영~ △학생을 위한 백상체전? 학교를 위한 백상체전? △나기 장기 하지 마시다. 깔끔한 승부!! -정정령당 △기숙사 캐쉬백크 빨리 달아줘~인 -덜 △승우 운전!! 목요일도 예외는 아니다. -best driver △수업시간 줄지 좀 마라. -good 2909 △도서관 책 좀 깨끗이 습시다. -책벌레(?) △승석아, 밥 마니 먹어 -방 친구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경주캠 총학비대위 확대간부수련회 논란

학생들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대표들의 잘못된 관행은 고치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총학을 구성하지 못한 것을 일반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리게 생각한다. 최선인 아닌 차선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구성은 필요했다고 본다.

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간부 수련회가 총학 비대위의 학기 사업을 구상하고, 우리 동대학생들에게 진정한 복지를 제공하자는 본 취지가 있었을 것이다.

최근 과거보다 확대간부수련회(이하 '확간')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이 뜨거워졌음을 느낀다. 확간에서의 금전적인 지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고 '확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사실 협찬을 약속했던 업체에서 측제가 끝나자 약속을 어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학생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협찬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었다.

서울캠 TEL 0212260-3491~2 경주캠 TEL 0541770-2057~8 FAX 0212279-1270 FAX 0541770-2057

기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여학생이라면 특히 겪어 봤을지언정 출서기의 비애, 나보다 훨씬 늦게 왔어도 줄 한번 잘 서서 먼저 불 일을 보고 나오는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힐끔 노려보게 된다.

장애인 돕는 여유로운 세상 며칠 전 학교 앞에서 친구와 택시를 타고 가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벌써 두 번째라 투덜투덜 거리면서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

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핸드폰 하나 잃어버린 것에 짜증을 내며 나 하나 살기도 바쁘다는 생각이 빠져 살던 나에게 아저씨는 반성할 기회를 주셨다.

했다. 집안 식구 누구도 형을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은 조용히 하나하나 형을 배려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은 형에게 처음으로 있는, 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공 및 복수전공 결정

2000학년도 2학년 2학기 재학생의 전공 및 복수전공 결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 전공 결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① 기간 서울캠 : 2000. 10. 16(월) ~ 10. 18(수) 경주캠 : 2000. 10. 18(수) ~ 10. 20(금) ② 접수처 : 학생소속 단과대학 교과과 (단, 아간학생은 아간강좌 교과처) 나. 결정 및 확정공고 2000. 10. 26(목) 이전에 대학별로 공고함. 2. 복수전공 가. 원서교부 및 접수 ① 기간 서울캠 : 2000. 11. 6(월) ~ 11. 8(수) 경주캠 : 2000. 10. 30(월) ~ 11. 1(수) ② 접수처 : 학생소속 단과대학 교과과 (단, 아간학생은 아간강좌 교과처) 나. 결정 및 확정공고 서울캠 : 2000. 11. 17(금) 경주캠 : 2000. 11. 10(금)

전공 결정 신청원 작성시 유의사항

- 대상 1. '96, '97, '98, '99학년도 학부, 계열 신입학생 중 급학기 2학년 재학생 2. '97, '98, '99학년도 1학기 학부, 계열 편입학생 중 급학기 2학년 재학생 * 단, 선학전공의 승려, 미술학부, 컴퓨터정보통신학부(아) 제외 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0. 16(월) ~ 10. 18(수) 2. 결정 및 확정발표 : 2000. 10. 26(목)에 대학별로 공고함. 전공결정 기본원칙 1. 전공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망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2. 전공 결정 대상자는 소속 학부(계열)내의 개설 전공만 지원할 수 있으나, 각 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즉 동일 전공에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3. 전공 및 학과결정 과정에서 특정전공(학과)으로 지원이 편중된 경우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배정한다. 1) 전공(학과)별 기준정원 :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우선배정기준 : 각 전공별로 최대 150%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3) 제1지망에서 각전공의 우선배정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성적순으로 사정하여 초과인원은 차순위 지망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 이 경우 1지망 지원자를 우선하기에 1지망 탈락후 2지망으로 옮겨갈 때 해당 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자가 결정권이 넘겨지므로 우선배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희망하는 전공의 인기도와 본인의 성적순위를 고려하여 1지망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4. 전공결정 신청원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장기치료절환, 군휴학등)로 2학기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급학기 신청원에 의거하여 전공배정을 확정한다. 배정 기준 1. F학점을 포함한 3학기 전제성적의 누계 평점 평균을 비교적용한다. * 2학년 1학기 일반편입학자가 대상이 되며 본교에서의 이수학기가 1학기기로 일반학생을과의 성적 단순비교는 비합리적이기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전공에 일정인원을 배정하여 당초입학자의 원칙을 준용한다. 2. 배정방식 : 각 학부(계열)의 전공결정대상 재학생인원중 편입생의 비율을 산출후 각 전공에 정원에 대비하여 일정인원을 배정한다. 3. 따라서 각전공별로 150%까지의 배정인원에는 편입생의 합당인원이 포함된다. 동점자 처리기준 1. 제 1기준 : 개인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제 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3. 제 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신청절차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희망전공을 숙고한다. 2. 전공 선택시 소속대학 교과과에 비쳐진 전체 성적순위에서 본인의 순위를 인지도 희망 전공의 인지도 및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3. 교무부는 신청원(OMR카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 특히 배정인원표에서 신청 전공코드를 확인후 정확히 표기할것 4. 본인이 소속된 학부내 전공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선택하고 동일전공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6.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에는 원상 복구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인 접수한 최종확인을 하여 붙여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1. '96, '97, '98년에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개설되었던 정치·교육, 행정학, 사회학전공만 지원이 가능하며, 아시아지역학전공과 신문방송학전공은 지원이 불가하다. 2. 공과대학 공과대학 학생은 기계, 식품, 화학공학부의 기계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3. 1996년에 경상학부(아)로 입학후 경영학부(아)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 및 1997년~1998년에 경영학부(아) 입학자는 경영학전공(아), 정보관리학전공(아) 및 주간의 광고학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간 경영학부에 소속된 학생이 광고학으로 전공확정시 주간 광고학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 조정기간내에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임의배정할 예정이므로 붙여이이 없도록 기간순수를 하여야한다. 전공별 배정비율인 100%에는 편입생과 정원의 입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신청자격 : 2000년 2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자 3. 대상학과 :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 * 단, 제한사항 있음 4. 제한사항 1) 한의학과, 의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2)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3) 교차과정 이수하기자를 제외한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불허 4)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법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복수전공 희망자는 신청원 작성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에 교과이수 및 졸업후 진로등에 관하여 문의할 것. 수용정원 초과시 선별원칙 1. 대상 전공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해당전공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즉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를 초과신청한 학과 및 전공이 대상이 된다. 2. 순위 선정 방식 1) 배정인원 이내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전체를 선발한다. 2) 지원자가 100%를 초과하는 전공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의 취득 성적(포함) 평점 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 3) 동점인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구제도 부전공 신청자의 복수전공 1. 구제도에서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가 '95학년도까지 급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과정 이수체계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따라서 부전공 이수중인자가 복수전공을 허가받게 되는 경우 부전공 이수는 당연히 자격 상실 졸업 및 논문 1.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기에 한하여 졸업요건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마지막 학기까지 복수전공 기준학점의 1/2이상 기취한학자만 연 기신청이 가능하다. 2.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3. 복수전공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4.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특수교수과를 고려하여 단과대학에 위임한다. 5. 제 1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 중도포기후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시 2학기전 이상 취득하였던 부전공으로 자동 전환하여 인정한다. 신청 절차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소속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2.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결정한 후 소속대학 교과과에서 복수전공 신청원(OMR카드)을 교부 받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3.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학과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4.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에는 원상 복구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인 접수한 최종확인을 하여 붙여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1. 복수전공 이수후 2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변경(포기)을 희망할 경우 소속대학 교과과에 복수전공 포기(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수전공 변경신청시 해당 복수전공 허용인원 잔여수에 한하여 허가한다. 2. 학정공고후 급학기까지 개인별로 이수한 교과목중 복수전공이 허가된 제2, 3전공과 일치 하는 전공교과목은 '복수', '복수' 로 이수구분이 자동변경된다. 3. 편입학생, 체육특기자, 정원의 입학생(농어촌, 외국인, 교포 및 외교관자녀등)의 경우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4. 사범대생 및 비사범대생중 교과과정 이수자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차복수전공도 이번 학위복수전공

복수전공 이수 신청원 작성시 유의사항

- 대상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1. 6(월) ~ 11. 8(수) 2. 확정 공고 : 2000. 11. 17(금)에 대학별로 공고함. 복수전공신청 기본방안 1. 선발인원 1) 기준정원 100%이내에서 결정하되, 시설여건·교수 확보 등의 사정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도 있다. * '99학년도와 전공별 정원이 기준이 된다.(인원 배정표 참조) 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1. 6(월) ~ 10. 18(수) 2. 결정 및 확정발표 : 2000. 10. 26(목)에 대학별로 공고함. 전공결정 기본원칙 1. 전공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망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2. 전공 결정 대상자는 소속 학부(계열)내의 개설 전공만 지원할 수 있으나, 각 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즉 동일 전공에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3. 전공 및 학과결정 과정에서 특정전공(학과)으로 지원이 편중된 경우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배정한다. 1) 전공(학과)별 기준정원 :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우선배정기준 : 각 전공별로 최대 150%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3) 제1지망에서 각전공의 우선배정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성적순으로 사정하여 초과인원은 차순위 지망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 이 경우 1지망 지원자를 우선하기에 1지망 탈락후 2지망으로 옮겨갈 때 해당 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자가 결정권이 넘겨지므로 우선배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희망하는 전공의 인기도와 본인의 성적순위를 고려하여 1지망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4. 전공결정 신청원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장기치료절환, 군휴학등)로 2학기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급학기 신청원에 의거하여 전공배정을 확정한다. 배정 기준 1. F학점을 포함한 3학기 전제성적의 누계 평점 평균을 비교적용한다. * 2학년 1학기 일반편입학자가 대상이 되며 본교에서의 이수학기가 1학기기로 일반학생을과의 성적 단순비교는 비합리적이기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전공에 일정인원을 배정하여 당초입학자의 원칙을 준용한다. 2. 배정방식 : 각 학부(계열)의 전공결정대상 재학생인원중 편입생의 비율을 산출후 각 전공에 정원에 대비하여 일정인원을 배정한다. 3. 따라서 각전공별로 150%까지의 배정인원에는 편입생의 합당인원이 포함된다. 동점자 처리기준 1. 제 1기준 : 개인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제 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3. 제 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신청절차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희망전공을 숙고한다. 2. 전공 선택시 소속대학 교과과에 비쳐진 전체 성적순위에서 본인의 순위를 인지도 희망 전공의 인지도 및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3. 교무부는 신청원(OMR카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 특히 배정인원표에서 신청 전공코드를 확인후 정확히 표기할것 4. 본인이 소속된 학부내 전공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선택하고 동일전공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6.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에는 원상 복구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인 접수한 최종확인을 하여 붙여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1. '96, '97, '98년에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개설되었던 정치·교육, 행정학, 사회학전공만 지원이 가능하며, 아시아지역학전공과 신문방송학전공은 지원이 불가하다. 2. 공과대학 공과대학 학생은 기계, 식품, 화학공학부의 기계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3. 1996년에 경상학부(아)로 입학후 경영학부(아)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 및 1997년~1998년에 경영학부(아) 입학자는 경영학전공(아), 정보관리학전공(아) 및 주간의 광고학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간 경영학부에 소속된 학생이 광고학으로 전공확정시 주간 광고학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 조정기간내에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임의배정할 예정이므로 붙여이이 없도록 기간순수를 하여야한다. 전공별 배정비율인 100%에는 편입생과 정원의 입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신청자격 : 2000년 2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자 3. 대상학과 :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 * 단, 제한사항 있음 4. 제한사항 1) 한의학과, 의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2)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3) 교차과정 이수하기자를 제외한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불허 4)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법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복수전공 희망자는 신청원 작성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에 교과이수 및 졸업후 진로등에 관하여 문의할 것. 수용정원 초과시 선별원칙 1. 대상 전공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해당전공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즉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를 초과신청한 학과 및 전공이 대상이 된다. 2. 순위 선정 방식 1) 배정인원 이내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전체를 선발한다. 2) 지원자가 100%를 초과하는 전공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의 취득 성적(포함) 평점 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 3) 동점인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구제도 부전공 신청자의 복수전공 1. 구제도에서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가 '95학년도까지 급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과정 이수체계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따라서 부전공 이수중인자가 복수전공을 허가받게 되는 경우 부전공 이수는 당연히 자격 상실 졸업 및 논문 1.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기에 한하여 졸업요건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마지막 학기까지 복수전공 기준학점의 1/2이상 기취한학자만 연 기신청이 가능하다. 2.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3. 복수전공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4.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특수교수과를 고려하여 단과대학에 위임한다. 5. 제 1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 중도포기후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시 2학기전 이상 취득하였던 부전공으로 자동 전환하여 인정한다. 신청 절차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소속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2.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결정한 후 소속대학 교과과에서 복수전공 신청원(OMR카드)을 교부 받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3.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학과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4.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에는 원상 복구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인 접수한 최종확인을 하여 붙여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1. 복수전공 이수후 2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변경(포기)을 희망할 경우 소속대학 교과과에 복수전공 포기(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수전공 변경신청시 해당 복수전공 허용인원 잔여수에 한하여 허가한다. 2. 학정공고후 급학기까지 개인별로 이수한 교과목중 복수전공이 허가된 제2, 3전공과 일치 하는 전공교과목은 '복수', '복수' 로 이수구분이 자동변경된다. 3. 편입학생, 체육특기자, 정원의 입학생(농어촌, 외국인, 교포 및 외교관자녀등)의 경우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4. 사범대생 및 비사범대생중 교과과정 이수자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차복수전공도 이번 학위복수전공

복수전공 이수 신청원 작성시 유의사항

- 대상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1. 6(월) ~ 11. 8(수) 2. 확정 공고 : 2000. 11. 17(금)에 대학별로 공고함. 복수전공신청 기본방안 1. 선발인원 1) 기준정원 100%이내에서 결정하되, 시설여건·교수 확보 등의 사정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도 있다. * '99학년도와 전공별 정원이 기준이 된다.(인원 배정표 참조) 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1. 6(월) ~ 10. 18(수) 2. 결정 및 확정발표 : 2000. 10. 26(목)에 대학별로 공고함. 전공결정 기본원칙 1. 전공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망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2. 전공 결정 대상자는 소속 학부(계열)내의 개설 전공만 지원할 수 있으나, 각 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즉 동일 전공에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3. 전공 및 학과결정 과정에서 특정전공(학과)으로 지원이 편중된 경우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배정한다. 1) 전공(학과)별 기준정원 :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우선배정기준 : 각 전공별로 최대 150%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3) 제1지망에서 각전공의 우선배정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성적순으로 사정하여 초과인원은 차순위 지망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 이 경우 1지망 지원자를 우선하기에 1지망 탈락후 2지망으로 옮겨갈 때 해당 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자가 결정권이 넘겨지므로 우선배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희망하는 전공의 인기도와 본인의 성적순위를 고려하여 1지망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4. 전공결정 신청원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장기치료절환, 군휴학등)로 2학기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급학기 신청원에 의거하여 전공배정을 확정한다. 배정 기준 1. F학점을 포함한 3학기 전제성적의 누계 평점 평균을 비교적용한다. * 2학년 1학기 일반편입학자가 대상이 되며 본교에서의 이수학기가 1학기기로 일반학생을과의 성적 단순비교는 비합리적이기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전공에 일정인원을 배정하여 당초입학자의 원칙을 준용한다. 2. 배정방식 : 각 학부(계열)의 전공결정대상 재학생인원중 편입생의 비율을 산출후 각 전공에 정원에 대비하여 일정인원을 배정한다. 3. 따라서 각전공별로 150%까지의 배정인원에는 편입생의 합당인원이 포함된다. 동점자 처리기준 1. 제 1기준 : 개인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제 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3. 제 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신청절차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희망전공을 숙고한다. 2. 전공 선택시 소속대학 교과과에 비쳐진 전체 성적순위에서 본인의 순위를 인지도 희망 전공의 인지도 및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3. 교무부는 신청원(OMR카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 특히 배정인원표에서 신청 전공코드를 확인후 정확히 표기할것 4. 본인이 소속된 학부내 전공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선택하고 동일전공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6.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에는 원상 복구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인 접수한 최종확인을 하여 붙여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1. '96, '97, '98년에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개설되었던 정치·교육, 행정학, 사회학전공만 지원이 가능하며, 아시아지역학전공과 신문방송학전공은 지원이 불가하다. 2. 공과대학 공과대학 학생은 기계, 식품, 화학공학부의 기계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3. 1996년에 경상학부(아)로 입학후 경영학부(아)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 및 1997년~1998년에 경영학부(아) 입학자는 경영학전공(아), 정보관리학전공(아) 및 주간의 광고학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간 경영학부에 소속된 학생이 광고학으로 전공확정시 주간 광고학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 조정기간내에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임의배정할 예정이므로 붙여이이 없도록 기간순수를 하여야한다. 전공별 배정비율인 100%에는 편입생과 정원의 입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신청자격 : 2000년 2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자 3. 대상학과 :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 * 단, 제한사항 있음 4. 제한사항 1) 한의학과, 의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2)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3) 교차과정 이수하기자를 제외한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불허 4)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법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복수전공 희망자는 신청원 작성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에 교과이수 및 졸업후 진로등에 관하여 문의할 것. 수용정원 초과시 선별원칙 1. 대상 전공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해당전공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즉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를 초과신청한 학과 및 전공이 대상이 된다. 2. 순위 선정 방식 1) 배정인원 이내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전체를 선발한다. 2) 지원자가 100%를 초과하는 전공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의 취득 성적(포함) 평점 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 3) 동점인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구제도 부전공 신청자의 복수전공 1. 구제도에서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가 '95학년도까지 급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과정 이수체계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따라서 부전공 이수중인자가 복수전공을 허가받게 되는 경우 부전공 이수는 당연히 자격 상실 졸업 및 논문 1.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기에 한하여 졸업요건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마지막 학기까지 복수전공 기준학점의 1/2이상 기취한학자만 연 기신청이 가능하다. 2.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3. 복수전공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4.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특수교수과를 고려하여 단과대학에 위임한다. 5. 제 1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 중도포기후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시 2학기전 이상 취득하였던 부전공으로 자동 전환하여 인정한다. 신청 절차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소속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2.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결정한 후 소속대학 교과과에서 복수전공 신청원(OMR카드)을 교부 받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3.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학과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4.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에는 원상 복구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인 접수한 최종확인을 하여 붙여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1. 복수전공 이수후 2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변경(포기)을 희망할 경우 소속대학 교과과에 복수전공 포기(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수전공 변경신청시 해당 복수전공 허용인원 잔여수에 한하여 허가한다. 2. 학정공고후 급학기까지 개인별로 이수한 교과목중 복수전공이 허가된 제2, 3전공과 일치 하는 전공교과목은 '복수', '복수' 로 이수구분이 자동변경된다. 3. 편입학생, 체육특기자, 정원의 입학생(농어촌, 외국인, 교포 및 외교관자녀등)의 경우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4. 사범대생 및 비사범대생중 교과과정 이수자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차복수전공도 이번 학위복수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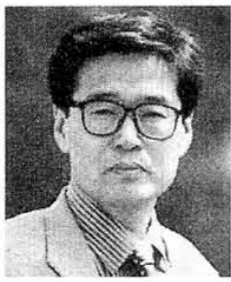
복수전공 이수 신청원 작성시 유의사항

- 대상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1. 6(월) ~ 11. 8(수) 2. 확정 공고 : 2000. 11. 17(금)에 대학별로 공고함. 복수전공신청 기본방안 1. 선발인원 1) 기준정원 100%이내에서 결정하되, 시설여건·교수 확보 등의 사정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도 있다. * '99학년도와 전공별 정원이 기준이 된다.(인원 배정표 참조) 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1. 6(월) ~ 10. 18(수) 2. 결정 및 확정발표 : 2000. 10. 26(목)에 대학별로 공고함. 전공결정 기본원칙 1. 전공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지망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2. 전공 결정 대상자는 소속 학부(계열)내의 개설 전공만 지원할 수 있으나, 각 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즉 동일 전공에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3. 전공 및 학과결정 과정에서 특정전공(학과)으로 지원이 편중된 경우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배정한다. 1) 전공(학과)별 기준정원 :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우선배정기준 : 각 전공별로 최대 150%까지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3) 제1지망에서 각전공의 우선배정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성적순으로 사정하여 초과인원은 차순위 지망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 이 경우 1지망 지원자를 우선하기에 1지망 탈락후 2지망으로 옮겨갈 때 해당 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자가 결정권이 넘겨지므로 우선배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희망하는 전공의 인기도와 본인의 성적순위를 고려하여 1지망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4. 전공결정 신청원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장기치료절환, 군휴학등)로 2학기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급학기 신청원에 의거하여 전공배정을 확정한다. 배정 기준 1. F학점을 포함한 3학기 전제성적의 누계 평점 평균을 비교적용한다. * 2학년 1학기 일반편입학자가 대상이 되며 본교에서의 이수학기가 1학기기로 일반학생을과의 성적 단순비교는 비합리적이기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전공에 일정인원을 배정하여 당초입학자의 원칙을 준용한다. 2. 배정방식 : 각 학부(계열)의 전공결정대상 재학생인원중 편입생의 비율을 산출후 각 전공에 정원에 대비하여 일정인원을 배정한다. 3. 따라서 각전공별로 150%까지의 배정인원에는 편입생의 합당인원이 포함된다. 동점자 처리기준 1. 제 1기준 : 개인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제 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3. 제 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신청절차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희망전공을 숙고한다. 2. 전공 선택시 소속대학 교과과에 비쳐진 전체 성적순위에서 본인의 순위를 인지도 희망 전공의 인지도 및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3. 교무부는 신청원(OMR카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 특히 배정인원표에서 신청 전공코드를 확인후 정확히 표기할것 4. 본인이 소속된 학부내 전공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선택하고 동일전공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학업지도교수의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6.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에는 원상 복구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인 접수한 최종확인을 하여 붙여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1. '96, '97, '98년에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개설되었던 정치·교육, 행정학, 사회학전공만 지원이 가능하며, 아시아지역학전공과 신문방송학전공은 지원이 불가하다. 2. 공과대학 공과대학 학생은 기계, 식품, 화학공학부의 기계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3. 1996년에 경상학부(아)로 입학후 경영학부(아)로 소속을 변경한 학생 및 1997년~1998년에 경영학부(아) 입학자는 경영학전공(아), 정보관리학전공(아) 및 주간의 광고학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간 경영학부에 소속된 학생이 광고학으로 전공확정시 주간 광고학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 조정기간내에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임의배정할 예정이므로 붙여이이 없도록 기간순수를 하여야한다. 전공별 배정비율인 100%에는 편입생과 정원의 입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신청자격 : 2000년 2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자 3. 대상학과 :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 * 단, 제한사항 있음 4. 제한사항 1) 한의학과, 의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2)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3) 교차과정 이수하기자를 제외한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불허 4) 예,체능계 학과(전공) 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 법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복수전공 희망자는 신청원 작성전에 반드시 해당학과에 교과이수 및 졸업후 진로등에 관하여 문의할 것. 수용정원 초과시 선별원칙 1. 대상 전공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해당전공 배정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즉 '99학년도 전공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를 초과신청한 학과 및 전공이 대상이 된다. 2. 순위 선정 방식 1) 배정인원 이내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전체를 선발한다. 2) 지원자가 100%를 초과하는 전공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의 취득 성적(포함) 평점 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교하여 선발한다. 3) 동점인 경우 동순위 처리한다. 구제도 부전공 신청자의 복수전공 1. 구제도에서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가 '95학년도까지 급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과정 이수체계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따라서 부전공 이수중인자가 복수전공을 허가받게 되는 경우 부전공 이수는 당연히 자격 상실 졸업 및 논문 1.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의 계속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기에 한하여 졸업요건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마지막 학기까지 복수전공 기준학점의 1/2이상 기취한학자만 연 기신청이 가능하다. 2.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3. 복수전공 이수한자는 졸업증서와 학위부에 관련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4.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특수교수과를 고려하여 단과대학에 위임한다. 5. 제 1전공에 대한 졸업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 중도포기후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 이수시 2학기전 이상 취득하였던 부전공으로 자동 전환하여 인정한다. 신청 절차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소속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2.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결정한 후 소속대학 교과과에서 복수전공 신청원(OMR카드)을 교부 받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3. 작성이 완료된 신청원은 해당학과에 개인별로 소속 학부(계열)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소속대학 교과과에 접수한다. 4. 일단 접수된 신청카드에는 원상 복구 및 정정이 불가하게 본인인 접수한 최종확인을 하여 붙여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타 1. 복수전공 이수후 2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변경(포기)을 희망할 경우 소속대학 교과과에 복수전공 포기(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수전공 변경신청시 해당 복수전공 허용인원 잔여수에 한하여 허가한다. 2. 학정공고후 급학기까지 개인별로 이수한 교과목중 복수전공이 허가된 제2, 3전공과 일치 하는 전공교과목은 '복수', '복수' 로 이수구분이 자동변경된다. 3. 편입학생, 체육특기자, 정원의 입학생(농어촌, 외국인, 교포 및 외교관자녀등)의 경우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4. 사범대생 및 비사범대생중 교과과정 이수자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차복수전공도 이번 학위복수전공

교무처

달하나 천강에

대학생의 언어습관



김종진
인문대
한문학과 교수

우리 국어 가운데 개념어를 비롯해 법률과 경제 및 기술 계통의 모든 용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개념어와 전문 용어를 한글로 바꾸려는 노력이 해방 이후 50여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감당하기에 한글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철학 문자인 한글에다 조어력과 축약력이 강한 한자를 혼용했을 때 우리말, 우리글은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요즘 대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PC 통신과 인터넷 같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잘짜짜(재미있었다)'와 '안녕와요(일본 와요)' '젤(제일)' 등에 이르는 신세대들의 무분별한 언어사용 모습은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신세대들의 왕성한 구매력에 영합하여 상업 광고 문구와 일부 스포츠 신문, 방송에도 여과 없이 왜곡되고 변형된 언어와 문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안녕'을 '안냐'로 '제일'을 '젤'로 표기하기까지 이른 것은 한글 전용이란 미명 아래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한 자어를 소리보다 가르친 탓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바른 국어 생활과 한글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한자 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언어와 문자는 국토 산하와 마찬가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단지 재미로, 또는 편리해서, 아니면 공감대와 유대감을 느끼거나 남 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언어와 문자를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경주캠퍼스에서는 일년에 두 차례씩 한국어문화의 주축로 '한자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 시험은 지난해 응시생이 5백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번 가을에는 천명을 돌파하리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글 전용 50년에 이르러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만든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현실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의 잠 못 이루는 밤

시행착오 딛고 국제영화제로 발돋움

부산 앞바다는 가을이면 어김없이 영화의 파도가 넘실댄다. 바로 다섯 번째 맞는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흔히 부산을 영화와 잘 어울리는 도시라고 말한다. 외부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뜨거운 시민들의 관심이 깔려있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남포동 거리에 백백이 들어선 영화시설물들은 영화도시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자랑하고 있다. 천혜의 조건을 업고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96년 첫 걸음마를 댄 영화제는 규모에만 치중한 나머지 뼈저리게 일수였다. 지금까지는 흥행과 지명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상작을 중심으로 영화제를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예술 지향적인 작가주의 영화가 주를 이루었고 특성 없는 지방영화제에 불과하다는 거침없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짧은 역사와 경험이 낳은 수많은 시행착오는 부산영화제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안내했다. 뜻을 올리고 향해에 나선 지 5년만에 찾아온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영화제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아시아 제일의 영화제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영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려는 프로그래머들의 노력과 세계영화제를 순례하며 펼친 홍보 덕분이다. 특히 아시아의 주목할만한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회부터 선보인 'PIFF'(Pusan Promotion Plan)와 국내외 배급사가 영화 바이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인터스트리얼 스크리닝' 프로젝트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화산업은 벤처사업과 같다는 말이 있다. 영화 한편을 성공시키는 것과 벤처기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비슷하다는 뜻이다.

즉, 영화 한 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본도 중요하지만 감독과 출연진, 스태프 등 지원세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영화제도 마찬가지다. 상영작과 프로그램, 스태프, 자원봉사자들의 일치된 노력이 있어야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다. 여기에 관객들의 호응이 더해지면 영화제의 흥성함은 더할나위 없이 짜릿해진다.

부산영화제의 뜻깊은 시간을 준비한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세계영화제에서 화제가 되었던 유명작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제3세계 작품들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며 "관객들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화려한 축제 뒤에는 항상 그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번 영화제 역시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같은 대안영화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안과 발굴'이라는 영화제의 순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움만 하다.

그러나 부산의 잠 못 이루는 밤은 다시 시작됐다.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끈질기게 지켜보는 독심만이 필요할 때이다. 부산영화제의 진정한 성공은 끝없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강력추천

화양연화

차우(양조위)와 리첸(장만옥)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웃해 살면서 서로 친해진다. 그러다 차우는 리첸이 아내와 똑같은 핸드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리첸은 차우가 남편과 똑같은 넥타이를 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각자의 아내와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되면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연민이라 생각된 감정이 사랑임을 확인하게 된다. 불륜에 빠진 두 쌍의 남녀를 통해 80년대 홍콩의 순수하고 낭만적이지만 안타까운 사랑을 그려낸다.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화양연화'는 올해 칸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왕가위 감독의 작품이다. '아비정전' 이후 10년만에 다시 만난 양조위와 장만옥의 원숙한 연기가 화면을 수놓는다. 양조위는 이 영화로 칸느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홍콩, 2000 / 왕가위 감독, 양조위·장만옥 주연. 오는 14일 7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상영장에서.



귀신이 온다

태평양전쟁 말기, 중국 북부 오지마을에 사는 마 다산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일본인 포로 2명을 맡기고 사라진다. 마 다산은 마을 사람들의 뜻을 어기고 일본인 포로를 살려두지만 곡식이 떨어지자 포로를 일본군에게 돌려주는 대신 곡식을 받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일본군은 약속을 어긴 채 마을사람들을 학살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마 다산은 복수를 결심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독특하게 제시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의 장' 부문에 출품한 '귀신이 온다'는 유명 배우에서 96년 '햇빛 찬란한 날들'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지양 웬 감독의 작품이다. 올해 칸느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영화로 중국인 특유의 수다스런 토론으로 영화를 이끌어 가지만 후반 40분간은 놀라운 반전을 통해 숨막힐 듯 강렬한 기운을 내뿜는다.

중국, 2000 / 지양 웬 감독, 지양 웬·지양 흥보 주연. 오늘(9일) 8시 30분, 남포동 대영1관·오는 11일 4시 30분, 남포동 극도극장에서.



눈물

창, 한, 란, 새리, 네 명의 10대 아이들이 만드는 도발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인생의 모습이 디지털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진다. 카메라 앞에 네 명의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이들을 따라가면서 차가운 현실과 좌절된 꿈들을 짚어간다. 사회의 냉정함에 눈물을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보고서.

'처녀들의 저녁식사'로 알려진 임상수 감독 작품으로 가리봉동에서 방황하는 거리의 아이들을 소재로 만든 영화이다.

'나쁜 잡'이라는 영화를 계획 중, 장선우 감독이 '나쁜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접었다가 최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한국, 2000 / 임상수 감독, 한준·박근영·봉태규·조은지 주연. 오는 12일 6시·13일 7시 30분, 남포동 부산2관에서.



문화부

fresh@dongguk.edu

개막식,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람들과 영상이 만들어내는 축제

약동하는 젊음이 아름답다고 했던가. 영화의 파도로 승렁하는 부산의 모습은 그보다 아름다웠다.

남포동을 개막식 장소로 잘못 알고 있다가 황급히 건너간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상영관은 행사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활기찼다.

되도록이면 좋은 자리에 앉아 관람하려는 관객들은 두어 시간정도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을 증명이나 하듯 주위에 들 어선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축제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또 영화제 관련 팸플릿을 읽고 있는 사람들, 삼삼오오 어울려 사진을 찍는 모습 등은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사람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고 있었다. 모두들 들뜬 마음에 빠른 발걸음으로 개막장에 들어섰고 영화제 관계자들과 배우들이 입장하자 장내의 술렁거림은 더욱 커져갔다.



개막식을 기다리는 관객들.

안상영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밤하늘에서 춤을 추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무이지경속으로 빠져들었다. 불꽃놀이의 향연이 끝났음에 아쉬워할 새도 없이 무대 위에서는 또 다른 춤의 향연이 시작되고 모두들 화려한 폼볼림에 넋을 잃고 있었다.

드디어 개막식이 끝나고 개막작인 인도영화 '레슬러'가 시작되었다. '레슬러'가 상영되면서 행사장을 향해 실새 없이 터지던 카메라의 플래시도 수그러들고 장내는 부다뻔 다스플라 감독이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한 이래로 다섯해가 지나고 있다. 갈수록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넉넉한 품으로 끌어들이는 부산.

그 다섯 해 첫날의 밤은 그렇게 무르익고 있었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환한 등을 달아주십시오.

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명에 젖어 한 점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미혹의 어둠을 밝히는 세 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책들을 선물해 보십시오. 세 개의 등불이 소중한 이의 가슴에 환한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체성/글·현관옥/사진·국판 208쪽·컬러 화보·값 7,500원

불경이 어렵고 무겁다면 페터 노이야르를 만나보십시오. 필름의 한복판에서 20여 년간 누더기 한 벌만 걸친 채 홀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나무 밑의 성자. KBS 일요 스페셜 방영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그가 시인 맨발로 한국 땅을 밟으며 들려주는 경건 같은 이야기

이 책을 통해 거의 맹목적으로 소유와 권리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



거지성자

전체성/글·신국판 312쪽·값 7,500원

페터 노이야르 "숨으로 가라, 세가 제 날개의 무게로만 날 듯이 소유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사는 거리의 수행자. 동서양 고금을 넘나드는 황홀한 가르침. 마음속에 잠자던 佛性이 깨어난다.

선생은 새를 보면 새가 되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되고, 스님을 대하면 스님이 되었다. 긴 여운을 남겨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류지영/KBS 일요 스페셜 프로듀서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

김영련 지음·신국판 256쪽·값 8,000원

20여 년간 한국 최고의 선사들로부터 禪을 배우고 한국인 최초로 미얀마에서 출가하여 위빠싸나를 그리고 밀법 선사로부터 티벳 밀교 후학을 전수 받은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선 수행 지침서. 그림과 문답을 통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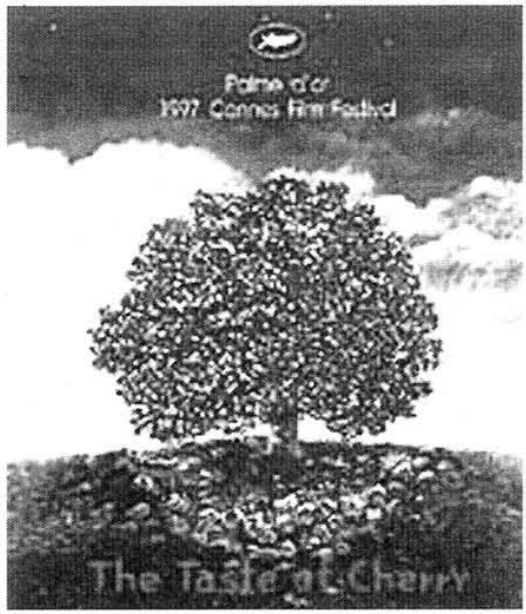
인류의 마지막 종교는 선이라는 말이 있다. 위빠싸나 수행은 인류의 진정한 의지가 될 것이며, 이 책이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성묵 스님/무불선원장

매체비평

- 비디오 편

'체리향기'

"때로 삶이 힘겹다 느껴질때
희노애락이 진하게 배어나는
체리향기를 떠올린다"



이란 압바스 키아로스키 감독의 '체리향기'

본사 사진자료

이 영화는 자살을 결심한 한 남자가 죽은 후 자신의 시체를 물어뜯어 사람을 찾는 여행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지진으로 황폐해진 이란의 변경을 자동차로 돌면서 세 명의 인물을 차례로 만난다. 맨 처음 그가 만난 인물은 병사였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군대생활에 대한 것. 주인공은 자신의 군대생활을 떠올리며 군인들이 행군간에 부르는 구호에 대해 감회에 젖는다. 군대에 청춘을 맡긴 젊은이 앞에서 잠시 감회에 젖어본 남자 주인공. 물론 그의 제인에 괴로워하던 병사는 물레 도망가 버린다.

두 번째 만난 인물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 주인공의 제이에 신학생은 논리로써 맞선다. 코란에 의하면 자살

은 금지된 것이므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주인공의 자살 논리 역시 만만치 않다.

삶이 고통스러우면 신은 그저 기다리라고 한다. 신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게 자살이다. 인간에 의한 스스로의 선택과 신에 의한 선택이 엇갈리는 순간이다. 결국 신학생은 자살방조를 허락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박물관에서 박제를 만드는 노인이다. 항상 죽음과 마주한 노인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면서 주인공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한다. 그가 한 이야기는 짧은 시절 자신이 경험한 자살에 대한 추억이다.

목을 매달기 위해 나무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앞에 나타나 오디나무 열매

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밤을 새고 아침에 그는 생의 환희를 맛보았다는 이야기. 하루밤 사이에 생사의 고비를 건너온 노인의 과거 이야기는 당장 주인공의 마음을 변화시키진 못한다.

그러나 그 이후 주인공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과연 죽어야 할 것인지를 망설이기 시작한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자살하려는 동기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당사자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불행이 남에게 전염되므로 자신이 죽는 것이 죄악을 막는 길이라고 괴변을 피력한다. 맞는 말이다. 이 비정한 세상에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길이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제목처럼 체리 향기와 그 맛을 어찌 잊을 수 있던 말인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하찮고 고달프다 한들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 즉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자연의 아름다움, 남녀의 달콤한 사랑 등등의 즐거움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 영화는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을 예찬한 것이다. 체리 향기란 삶의 향기다. 삶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향기. 자신이 삶 안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삶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 향기는 필요하다.

정재형
영화평론가/연극영상학부 교수

옛날 옛적,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빠어난 시인 목객의 정기 받은 '목객골' · 예술가의 넓은 '석장'

남산의 본이름은 목객산(木客山) 또는 인경산이다. 기록에 따르면 남산의 원래 이름은 목객산(木客山)이었으나 중국 사신이 '벽'과 '발'의 음(音)을 혼동하여 '목객산'으로 쓴 뒤 그렇게 불리었다고 한다.

목객산은 북악·인왕·낙산과 더불어 서울을 둘러싼 내사산의 하나이면서 풍수로는 북악을 주산으로 한 안산(案山)에 해당한다. 목객산 주변에는 명당이 많아 뛰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퇴계로 4가와 5가 사이의 주유소 부근에서 조공조가 태어났으며, '한국의 집' 터는 박경년(朴景年)이 태어나 산 곳이다. 남대문 시장이 있는 회현동은 동래 정씨 집성촌으로 종종 때 영의정을 지낸 정광필을 필두로 무려 열두 명의 정승을 배출함으로써 '조선은 정씨가 움직인다'는 말이 회자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명동성당과 중앙극장 사이에서 고산 윤선도가 살았고, 건천(健川) 부근 인현동에서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나 자랐다.

또한 연암 박지원은 북대문(지금의 명동성당 자리) 부근에 살면서 술취시절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평생 글만 읽고 살려던 한 선비가 아내의 등쌀에 밀려 세상에 나와 널리 경륜을 펼친 이야기를 다룬 '허생전'의 공간 배경도 목객골이다.

우리 동국대학교를 흔히 '동악(東岳)'이라 부르는데, 이 명칭은 이안눌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동악은 두보의 시를 만 번이나 읽었고 4천수가 넘는 시를 남긴 조선조 중기의 뛰어난 문사였다. 그는 북골 집 뒤에 단을 쌓고 이요봉, 권필, 홍학곡 등 당대의 문인들과 음풍영월을 즐겼다.

그의 사후에 현손 이주진이 집 근처 바위에

'동악선생시단'이란 글자를 새겼는데, 그 바위가 동국대학교 계산학사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동악선생시단'이란 글자가 새겨진 바위는 지금 잔해만 박물관에 전할뿐이다. 학생회관 앞에 계산학사를 짓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언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 바위가 원형을 복원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우리 학교를 '동악'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동국대학교와 동악 이안눌 사이에는 어떤 관련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가 목객산 자락에 터를 잡은 것과 하필이면 그 안에 동악시단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우연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교 이후 한국문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우리 학교의 문화적 전통을 생각하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아 넘길 수만은 없을 듯하다. 어쨌든, 우리 학교를 '동악'으로 부르는 관습을 굳이 고칠 필요는 없어도 그 유래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옳을 것이다.

목객산 주변에는 이름난 시인 목객이 널리 있었다. 그 정기를 받아서인지 동국대학교의 문명은 여전히 쟁쟁(爭鋒)하다. 지난 96년 중앙일보에서 각 대학의 국문과의 현주소를 평가한 결과, 우리 학교는 문인배출 1위라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창작활동은 선배들이 격정할 정도로 부진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곧 걸출한 후배들이 쏟아져 나와 옛날의 성가를 회복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교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장영우 교수
문과대 문예창작학

양지를 아시는가.

그는 조카. 서예에도 일가를 이룬 화가이기도 했다. 자신을 짝사랑 하다 그만 지체 잡이 들고 만 지귀의 누더기 옷 위에 목객이를 놓아 주고 돌아왔던 신라의 여왕 선덕. 그 때의 스님이 양지였다. 일연 김경명이 쓴 '삼국유사'의 '양지, 석장을 부리다' 항목을 들여온다.

"석장지는 그 조상과 고향을 알 수가 없다. 단지 선덕왕 시절에 모습을 세상에 나타냈음을 알 뿐이다. 그가 석장의 머리에 포대를 걸어 두면 석장은 저절로 시주의 집으로 날아가 흔들리며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 시주의 집에서는 이를 알아채고 제에 올리는 비용으로 곡식 등을 포대에 넣는다. 포대가 차면 양지의 석장은 저절로 날아 돌아오곤 했다. 그래서 양지가 머물고 있는 절을 석장사라고 했다"

석장은 무엇인가. 스님들이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 이것을 마음대로 부렸던 스님 양지. 계속해서 '삼국유사'에는 그 자취를 알 길이 없는 서라벌의 영묘사와 법림사의 현판을 양지가 썼고, 영묘사의 장육존상과 천왕상, 전탑의 기와들을 만들었다고 적어 놓았다.

그 또한 찾을 길 없는 천왕사 탐 아래 있었다는 팔부신장도 그의 작품. 불법을 수호하는 하늘과 용 등 여덟 개 신장이 팔부신장. 법림사의 금강신도 그가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기록의 많은 부분이 설화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삼국유사'.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장사는 존재했던 절임을 경주캠퍼스 박물관 탐이 1986년 찾아 내었다.

캠퍼스의 서남쪽 산자락의 이 절터에서 190여 점의 불상과 벽화를 발굴했다. 얼굴을 내민 벽돌에는 탐과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석장'이라고 새겨진 조선시대 자기가 발견된 것이 무엇보다 의미심장하다. '삼국유사'에서 말한 석장사가 신라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존재한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 양지 스님이 있었다는 '삼국유사' 기록의 현실성이 확보되었다.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경주캠퍼스의 이 주소를 모르는 동국인이 있는가.

'석장동'이란 땅이름에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양지 스님이 있던 석장사에서 그 명칭이 비롯된 것임을 쉽게 헤아릴 것이다. 가장 보수성을 지닌 것이 땅이름. 이것은 언어학자들의 증언이다. 땅이름은 그만큼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영산관에서 금강생관 쪽으로 가는 길목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가는 모가지를 하늘거리고 있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 번 쳐다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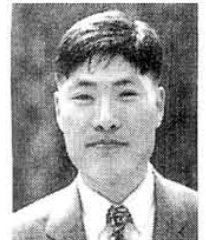
거기 혹 곡식을 가득 담은 포대 하나가 파랗게 띄어 있는 구만리장천. 가을 하늘 저쪽으로 떠 날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크게 한번 뜨고 바라 보아라.

형형한 눈빛의 동국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석장동의 뜰. 거기에 설화의 세계가 역사 속에서 물안개처럼 피어올라 어우러지면서 고즈넉하게 저물어 간다.

은은하게 걸리는 정각원의 범종 소리가 낮게 낮게 가라앉고 있는 것을.

김선학 교수
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

고수가 권한다



정연주 법과대 법학과 교수

12명의 성년 사람들



"건전한 사상과 다양한 일반인들이 이끌어 가는 미국 배심원 재판제도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범하는 편견·선입견·아집·예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틴계 소년에 대한 유죄 판결 여부를 논쟁으로 풀어가는 12명의 배심원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배심원들 안에서 벌어지는 배심원들간의 갈등과 의견대립을 논리정연하게 풀어간다.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 / 잭 레먼, 조지 C. 스크트 주연 / 1967년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읽다보면 그 속에서 인생을 발견하고 인생의 총천연 길라잡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 도스토예프스키가 2년여에 걸쳐 완성한 작품. 카라마조프 일가에서 벌어지는 부자간·형제간의 애욕을 그린 소설이다.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 홍신문화사
전2권(상·하) 각 9천원.

THE BEATLES Anthology



"비틀즈의 음악에는 철학이 있고 그 속에서 인생의 슬픔을 느낄 수 있으며 가사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70년 5월에 이들이 발표한 'LET IT BE'는 그 가사를 통해 사람들이 좌절했을 때 기운을 북돋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그룹'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영국출신 4인조 그룹 비틀즈의 노래를 모은 음반이다. 77년 존 레논이 미완성으로 남긴 곡을 94년 폴, 조지, 링고가 제작업인 Free As A Bird'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진 'Love Me Do' 등 주옥같은 곡이 수록되어 있다.

EMI / 1995년 5월 / 정가 2만7천원.

지하철 1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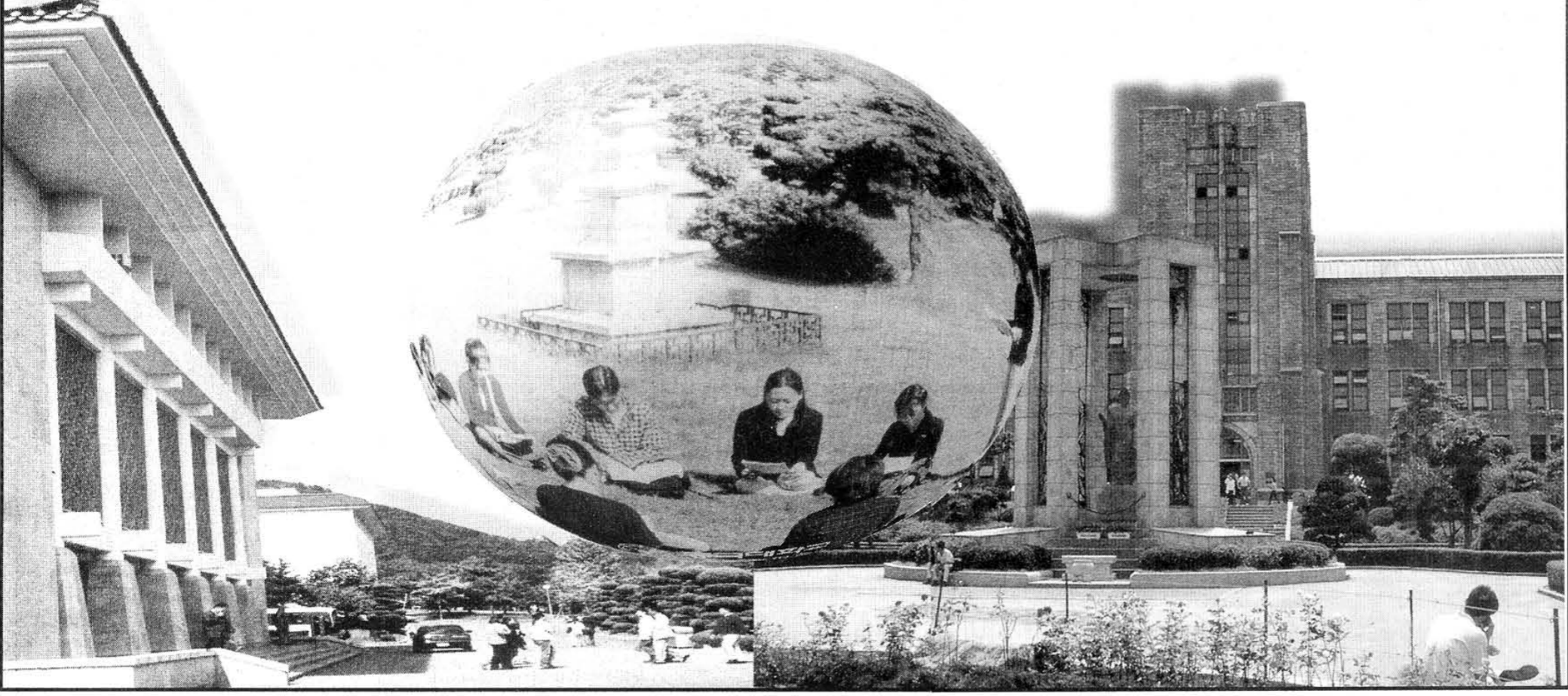


"생동감있는 연기와 연출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 서민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배경음악이 연기 장면에도 맞게 무대 양면에서 생음악으로 연주되어 더욱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94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극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1천회가 넘게 무대에 올려진 작품이다.

악훈자를 찾아 서울로 오는 연변처녀 선녀의 눈을 통해 우리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현실을 풍자한다. 그름 '무임승차'의 생음악이 어우러져 뮤지컬의 흥을 돋운다.

김민기 연출 / 현재 '2000 지하철 1호선' 준비중.



메아리

공동경비구역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오고 서서히 지막이 올라 갈 때, 가슴 속 깊이 박혀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다.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있는 병사들의 사진.

공동경비구역은 서로를 감시하고 동향을 살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곳이다.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흑백 사진 한 장은

동쪽 상단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 그 이상의 무엇을 말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은 '쉬리' 이후 한국영화의 최대 흥행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단 조국의 현실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흥행에는 성공했으나, 여느 반공영화와 다를 바 없는 한계를 가졌던 쉬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슴 뜨거운 메시지가 공동경비구역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50년

동안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족쇄에 묶여 일체의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빼앗긴 이 나라 국민들의 모습이다. 권력자가 가진 자가 강요하는 생각에 반기를 들면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사회. 지난 50년간 북한이 '적'이라는 절대 절명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8월의 총선. 그날의 사진 후 남·북의 병사들은 정치적 이해와 지배 권력의 이익에 얽혀 버린다. 50년 동안 이 사회를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두어 놓은 거대한 족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가 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며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반공이데올로기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형, 우리 걸국은 적이었어." 그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로가 적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적일 수밖에

에 없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에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어 지금, 아직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약법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철레! 국가보안법.

김진아 편집장
pazama@dongguk.edu

책소개

열의 꽃



시인의 역할과 우리 시의 전통을 재조명한 백한이의 18번째 시집. 종교 철학으로서의 '죽음'을 화두로 삶의 이면과 존재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한편,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기 비판을 상실한 사이버 문명을 통렬히 비판한다. 지난 97년 한민족 시인의 전통조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 17회 세계시인대회 현황도 함께 실려있다. 백한이 지음/다솜/평가 5천원

하두놓고 영불하세



중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불교가 급작스럽게 쇠퇴의 길을 걷던 청조 말, 영불수행으로 증생 회화와 불법홍포에 헌신한 근세 중국 고승 인공대사의 영불 법문을 엮었다. 불법에 대한 갖가지 질문을 지성하고 세세하게 설명한 글과 그밖의 서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영불수행에 대한 핵심내용을 간추려 놓아 자연스럽게 영불과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이끈다. 인공대사어록/김지수 옮김/불광출판부/평가 1만 2천원

경전산책

본교 불교학과 교수인 계환 스님이 '능가경'을 비롯한 48가지 경전을 쉬운 말로 설명해 놓은 책. 경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설명하고 '관무량수경'부터 '화엄경'까지 가나다순으로



경전을 정리해놓았다. 저자는 "문명과 문화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자기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자로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경전 필독을 강조한다. 계환 스님 지음/민족사/평가 7천 5백원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서도회 전시회



서울캠 서예 동아리 '서도회'가 정기 전시회를 열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연습한 개성적인 글씨체를 위주로 전시장을 꾸밀 예정이다. 또한 서도회의 창립 멤버이자 서예가로 유명한 '마하' 선주선 선생의 작품도 선보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문의 011-813-1441(회장 백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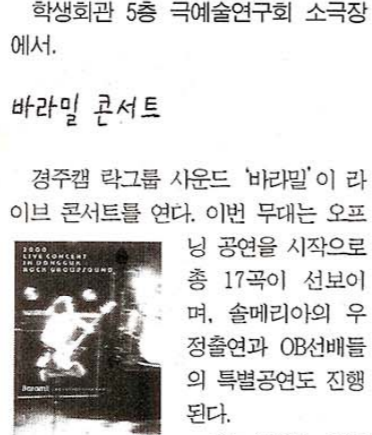
국문과 희곡분과 실습공연



서울캠 국어국문과 희곡분과가 제2회 실습공연을 맞아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무대에 올린다. 현재 국어국문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조현진양의 창작품으로, 각

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한 여자와 세 요괴가 등장하여 삶에 대한 통찰을 극화한 것이다. 국문과 학생들이 기획과 연출, 연기까지 맡아 희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오후 4시 30분, 7시. 학생회관 5층 극예술연구회 소극장에서.

바라밀 콘서트



경주캠 락그룹 사운드 바라밀'이 라이브 콘서트를 연다. 이번 무대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총 17곡이 선보이며, 솔메리아의 우정출연과 OB선배들의 특별공연도 진행 된다. 오늘(9일) 오후 6시. 소강당 I에서.

필하모니 음악감상회

경주캠 필하모니가 공개 음악 감상회를 가진다. 이번 자리는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접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서양음악과 국악을 비교·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10일 오후 6시. 소강당 I에서.

영상졸업사진전

경주캠 영상사진예술연구회에서 제15회 영상졸업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순수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자리로 졸업생 7명의 졸업생들이 사진을 통해 총 45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학교 밖에서

몽짓 하나, 나는 나

극단 끼관(끼아들까? 관벌일까?)은 장애여성인권센터 문화 사업의 하나로 '몽짓 하나, 나는 나'를 무료 공연한다. 장애 여성의 성장과 삶, 사랑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장애 여성들이 직접 연기하여 장애의 의미와 장애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성숙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문의 831-2196

10월 13일(금) 오후 4시	국립재활원 대강당
10월 29일(일) 오전 11시~오후 1시	미로니에 공연 야외무대
11월 10일(금) 오후 5시, 7시	연세대학교 문화공간

"뱀퍼? 램퍼!" 연상공연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무대에 올렸던 "뱀퍼? 램퍼!"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연장공연한다. 이 작품은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부인으로 불리는 네 명의 여성들의 진정한 자아찾기 과정을 그린다. 오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오후 7시 30분(화·수·목), 오후 3시·7시 30분(금), 오후 4시·7시(토), 오후 4시(일). 대학로 '강강술래'에서. 문의 3476-0662(여성문화예술기획)

불휘여 풍악을 울려라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금상 수상



전국대학생 마당놀이에서 금상을 수상한 풍물패 '불휘'.

수업이 끝나는 오후 교내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풍물 소리가 있다. 절로 어깨를 들쭉거리게 만드는 그들은 바로 경주캠 중앙 풍물패 불휘. 뿌리의 옛 민 불휘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처럼 진정 풍물을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불휘는 지난달 17일 펼쳐진 제13회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농악부문에 참가한 불휘는 탈춤부문과 풍물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관례상 작년과 동일부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쉽게 금상을 받게 되었다.

80년에 창단된 불휘는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훈련 부장과 정보 관리 부장 등의 지휘아래 실력을 키워 그간 많은 수상경력을 쌓아왔다.

이처럼 화려한 수상경력은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방학중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거듭했으며, 연습 도중 인대가 늘어나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도 있었고, 1학년들은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불휘인들이 가진 열정은 그들을 다시 풍물과 함께하게 만들었다. 계속되는 연습으로 심신이 피곤하지만 악기를 칠 때면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피곤함을 떨쳐 버린다는 것 그들의 심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재 프로로 전향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 선배의 가르침이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친분 또한 불휘의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휘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김홍석(경상2)회장은 "인근 대학만 보더라도 연습 공간과 지원금이 풍부한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체육관 빌리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을 한없이 사랑하고, 풍물과 혼연일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불휘는 지난달 28일 학생들의 성원 속에 정기 공연을 가졌다. 또 오는 15일에는 서울에서 대외 수상 기념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불휘, 앞으로도 동악을 누비며 신명난 한판을 전개하는 그들의 모습이 꾸준하게 기대해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재 프로로 전향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 선배의 가르침이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친분 또한 불휘의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휘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김홍석(경상2)회장은 "인근 대학만 보더라도 연습 공간과 지원금이 풍부한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체육관 빌리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을 한없이 사랑하고, 풍물과 혼연일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불휘는 지난달 28일 학생들의 성원 속에 정기 공연을 가졌다. 또 오는 15일에는 서울에서 대외 수상 기념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불휘, 앞으로도 동악을 누비며 신명난 한판을 전개하는 그들의 모습이 꾸준하게 기대해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재 프로로 전향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 선배의 가르침이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친분 또한 불휘의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휘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김홍석(경상2)회장은 "인근 대학만 보더라도 연습 공간과 지원금이 풍부한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체육관 빌리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을 한없이 사랑하고, 풍물과 혼연일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불휘는 지난달 28일 학생들의 성원 속에 정기 공연을 가졌다. 또 오는 15일에는 서울에서 대외 수상 기념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불휘, 앞으로도 동악을 누비며 신명난 한판을 전개하는 그들의 모습이 꾸준하게 기대해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재 프로로 전향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 선배의 가르침이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친분 또한 불휘의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휘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김홍석(경상2)회장은 "인근 대학만 보더라도 연습 공간과 지원금이 풍부한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체육관 빌리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을 한없이 사랑하고, 풍물과 혼연일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불휘는 지난달 28일 학생들의 성원 속에 정기 공연을 가졌다. 또 오는 15일에는 서울에서 대외 수상 기념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불휘, 앞으로도 동악을 누비며 신명난 한판을 전개하는 그들의 모습이 꾸준하게 기대해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재 프로로 전향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 선배의 가르침이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친분 또한 불휘의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휘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김홍석(경상2)회장은 "인근 대학만 보더라도 연습 공간과 지원금이 풍부한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체육관 빌리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을 한없이 사랑하고, 풍물과 혼연일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불휘는 지난달 28일 학생들의 성원 속에 정기 공연을 가졌다. 또 오는 15일에는 서울에서 대외 수상 기념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불휘, 앞으로도 동악을 누비며 신명난 한판을 전개하는 그들의 모습이 꾸준하게 기대해본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재 프로로 전향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 선배의 가르침이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친분 또한 불휘의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휘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김홍석(경상2)회장은 "인근 대학만 보더라도 연습 공간과 지원금이 풍부한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체육관 빌리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을 한없이 사랑하고, 풍물과 혼연일체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취업 길라잡이

취업시즌 맞아 대학별 특강·이벤트 활발

하반기 취업 동향과 대책 ... 인력시장의 양극화, 기본에 충실해야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취업을 위한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2000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신규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민영화 계획에 따른 공기기업들의 고용유지로 인력재용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기모집이나 대규모 공채보다 인터넷 공고를 통해 수시 채용이 주류를 이루며 전문성이나 창의성에 비중을 둔 면접 시험이 응시자들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취업 동향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취업특강, 모의면접 등의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본격적인 취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

난 25일 특강을 시작으로 오는 18일부터는 모의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과대 교수 2인으로 구성된 '취업준비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취업 지원에 힘을 계속한다.

본격적인 취업시즌에 대비, 지난 25일 서울캠 분관 중강당에서 열린 취업 특강은 하반기 채용 동향과 대책을 전망해 보는 자리로 취업 전략과 21세기 인재를 위한 제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인 취업 전략으로는 △여학생력(토익 700이상, G-TELP 2등급 이상) △컴퓨터 능력(기초 컴퓨터 및 일반 OA,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자격증, 민간 자격증) △진공관련 자격증, 희망관련 학원수강으로 전문성 제고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선택 등을 꼽고

있으며 그밖에도 철저한 정보수집으로 취업기회를 넓힐 것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형 인재를 위한 제안으로는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기본에 충실(학교 성적)하러 △뚜렷한 진로, 인생 목표를 수립하라 △시간을 관리하라 △다양한 체험(동아리 활동 등)을 하라 △전문가로서 '끼'를 발굴하고 가꾸라 △명확한 직업관을 가져라 △여성의 경우, 특유의 섬세함을 심분 활용하라 △활동무대를 세계로 넓혀라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하라 △표준관리에 유의하라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인이 되라 등이었다.

최은진 기자 funny@dongguk.edu



"끼한마당" ... 프로댄서를 능가하는 춤실력과 기교 동악을 달고 있는 학생들. 무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친구들의 모습 또한 기교 토크를 뽐냈던 한데. 촬영=송광수 동문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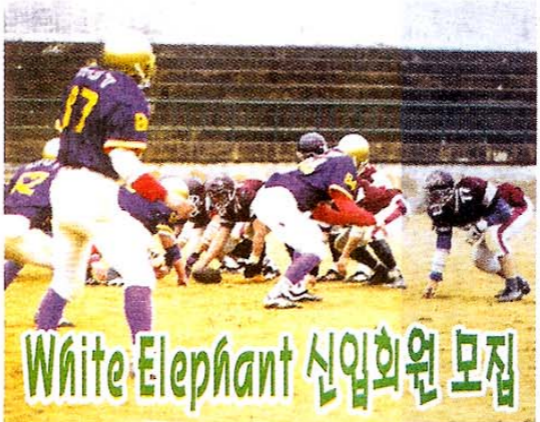
월	월요일(1300)
화	화요일(1500)
수	수요일(1500)
목	목요일(1500)
금	금요일(1500)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월요일(1300)
화	화요일(1500)
수	수요일(1500)
목	목요일(1500)
금	금요일(1500)



저희는 경주캠 미식축구 동아리로 대학생활의 멋진 추억과 경험을 살릴 수 있으며, 스포츠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미식축구 동아리는 현재 전국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학생들 사이에 각광받는 동아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강인함과 스포츠 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주세요. 당신이 찾는 동아리가 여기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학생도 환영합니다.



모집기간: 11월 초순까지 예정
장소: 대운동장 스탠드 아래 동아리방
연락처: 주창-김상현(생화학) 011-866-7272

제6회 만해문화상을 공모합니다!!

만해문화상(제6회)을 공모합니다!!

대상: 대학생이면 누구나
대상: 대 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가 격 20만원

공모기간: 2000년 10월 중순까지

문의: "만해" 편집위원회 (11-234-3080)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월요일(1300)
화	화요일(1500)
수	수요일(1500)
목	목요일(1500)
금	금요일(1500)

만해석좌교수 강연회

1. 일시 및 장소
13일(금) 명진관 206호
2. 강사 및 주제
· 조영래 교수
통일 시대의 문학 (14:00~15:20)
· 신경림 교수
디지털시대의 바른 시 쓰기(15:30~17:00)

허갑기법 논문집 불정식

박영길 교수(법과대 법학과)
10/12 (목) 오후 6시
엠버서더 호텔 2층 Ball Room